

## 靈樞·經水에 對한 研究

金 志 勇

圓光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 A Study on the *Kyoung Su*(經水) of the *Young Chu*(靈樞)

A study on the *Kyoung Su*(經水) of the *Young Chu*(靈樞), one of the classic book of oriental medicine, was carried out analytically for the right comments.

The *Kyoung Su*(經水) is in chapter 12, volumn 3 of the *Young Chu*(靈樞).

This chapter mainly describes the relation of the 12 Meridian(十二經脈) and the 12 *Kyoung Su*(十二經水) that the rivers were located in China at that time, so it is named '*Kyoung Su*'(經水).

Summerizing the contents of the *Kyoung Su*(經水) in reference to the contents of successive generation note,

the contents were as follows;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n chapter I is that there is the standard value of five viscera and six bowels(五藏六府), Meridian(經脈) and Qi-Hyul(氣血), so a doctor has to do the therap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鍼灸治療) according to it.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n chapter II is that the 12 Meridian(十二經脈) is connected to the internal five viscera and six bowels(五藏六府) and corresponds to the external 12 *Kyoung Su*(十二經水), and each the 12 *Kyoung Su*(十二經水) has the difference of Yin-Yang(陰陽).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n chapter III is that the therap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鍼灸治療) has the proper numerical value according to each the 12 Meridian(十二經脈), and if we violate it, that will cause harmful effects.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n chapter IV is the meaning of stadard value and that this stadard value is not absolute, so it has to be properly changed considering the age, height, weight, and strength of patient.

### I. 緒 論

『靈樞·經水』편은 권3제12에 있고, 『太素』에는 권5 「十二水」에, 『甲乙』에는 권1제7 「十二經水」에, 『類經』에는 권9 「經絡類·十二經水

陰陽刺灸之度」에 있고, 『鍼灸大成』 「手足陰陽經脈刺論」에 일부가 있다.

본편은 주로 인체의 十二經脈이 당시 중국地上的 十二經水에 합하는 것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므로 篇名을 '經水'라고 하였다.

본편을 내용에 따라 나누어 보면 4장으로

나누어지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藏府, 經脈, 血氣에 標準數値가 있어, 鍼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에 相合해야 한다는 것이고, 2장은 2절로 나누어지고, 1절은 十二經脈이 안으로는 五藏六府에 이어지고 밖으로는 十二經水에 相合한다는 것이고, 2절은 十二經水에 陰陽의 구별이 있다는 것이고, 3장은 十二經脈 각각에 相當한 鍼灸度數와, 誤治하였을 때의 副作用에 대한 것이고, 4장은 보편적인 기준의 意義와 상황에 맞게 치료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본편은 十二經水와 十二經脈을 比較·結合하여 人體와 自然界의 現象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鍼灸治療에 있어 가장 적합한 刺鍼깊이와 留鍼시간의 일정한 標準을 제시하였다. 또한 鍼灸治療를 시행하는데 있어 환자의 年齡, 身長, 肥瘦, 強弱 등을 살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편이다.

그러나 본편은 뜻이 심오하고 古文으로 글

이 생략되어 본래의 趣旨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내용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各家 註釋을 比較하여 正確한 意味를 理解하도록 하였다.

## II. 研究方法 및 資料

本篇의 內容을 구체적으로 把握하고 쉽게 理解하기 위하여 內容에 따라 4章 2節로 原文을 나누고, 각각 章節의 이름을 붙였고, 原文과 註釋에 懸吐를 하였으며, 校勘·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結語의 順으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의 底本은 『黃帝內經靈樞』聚珍倣宋版印本<sup>1)</sup>으로 하였다.

나. 懸吐는 傳來의 懸吐方式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現代化하도록 노력하였다.

다. 校勘에 인용한 書目은 <表.1>과 같다.

<表.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번호	書名	略稱
1	元至元己卯古林胡氏刊本	胡本
2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堂刊本	熊本
3	明綉谷書林周曰校重刊本	周本
4	明萬曆二十九年醫統正脈叢書本	統本
5	明金陵尙意齋刊本半葉十行行二十字	金陵本
6	明刻本半葉十四行行二十四字	明本
7	明趙府居敬堂刊本傳青主批校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藏本
8	日本舊抄本北京中醫研究院藏	日抄本
9	日本田中清左衛門本	日刻本
10	黃以周『內經鍼刺』光緒甲申校刻本	黃校本
11	宋嘉祐二年 校正醫書局刊行 黃帝內經靈樞	林校
12	黃帝內經太素	太素
13	鍼灸甲乙經	甲乙
13	鍼灸大成	大成
14	靈樞注證發微	馬註本
15	類經	類經
16	靈樞集註	張註本
17	靈樞懸解	黃註本

<表2> 較註書目 및 略稱

번호	註釋家	時代	書名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王冰	唐	黃帝內經靈樞	王
3	馬蒔	明	靈樞注證發微	馬
4	張介賓	明	類經	景岳
5	張志聰	清	靈樞集註	張
6	黃元御	清	靈樞懸解	黃
7	丹波元簡	1808	靈樞識	丹波
8	山東省中醫學院	1958	黃帝內經靈樞白話解	白話解
9	南京中醫學院	1986	靈樞經譯釋	譯釋

라.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適當하다고 인정되는 音과 訓을 選擇하였다.

마. 較註는 <表2>의 註釋들을 比較하여 類似한 內容別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인정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은 脚註로 처리하였다.

바. 直譯은 原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사. 意譯은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蓄된 뜻까지 理解되도록 敷衍하여 解釋하였다.

아. 本 論文에 사용한 符號는 較註에 [ ], 字句解에 ( ), 校勘에 ' ', 引用文獻에 『 』, 論文 및 篇名에 『 』로 表示하였으며, 脚註는 '1), 2), 3), …'의 一連番號로 표기하였다.

### III. 研究內容

#### 1. 藏府, 經脈, 血氣의 標準數值에 따른 治法

##### 【원문】

黃帝問于岐伯1) 曰經脈十二者는 外

合于十二經水(1)하고 而內屬(2)于五藏六府라 夫十二經水者는 其有大小深淺廣狹遠近이 各不同하고 五藏六府之高下小大와 受穀之多少도 亦不어늘 相應奈何며 夫經水者2)는 受水而行之하고 五藏者는 合神氣魂魄(3)而藏之3)하고 六府者는 受穀而行之하며 受氣而揚(4)之하고 經脈者는 受血而營(5)之어늘 合而以治는 奈何오 刺之深淺과 灸之壯數를 可得聞乎잇가

岐伯이 答曰善哉라 問也시어 天至高하야 不可度(6)이요 地至廣하야 不可量(7)이 此之謂也라 且夫人은 生于4)天地之間 六合(8)之內하니 此天之高와 地之廣也는 非人力之所5)度量而至

也나 若夫八尺之士6) (9)는 皮肉在此하니 外7)可度量切循(10)而得之8)요 其死엔 可解剖而視之9)라 其10)藏之堅脆(11)와 府之大小와 穀之多少와 脈之長短과 血之清濁과 氣之多少와 十二經之11)多血少氣와 與其少血多氣와 與其皆多血氣12)와 與其皆少血氣에 皆有大13)數(12)니 其治以鍼艾14)하야 各調其經氣에 固(13)其常有合乎인저

【校勘】

- 1) 黃帝問于岐伯: 『甲乙』 권1제7(以下同)에는 '黃帝問'으로 되어 있다.
- 2) 其有大小深淺廣狹遠近 …… 相應奈何夫經水者: 『甲乙』에는 없다.
- 3) 藏之: 『太素』 권5 「十二水」(以下同)에는 '藏'으로 되어 있다.
- 4) 生于天地之間: 『太素』와 『甲乙』 林 「序」에는 '生天地之間'으로 되어 있다.
- 5) 非人力之所度量而至也: 『太素』·『馬註本』·『類經』·『張註本』에는 '非人力之所能度量而至也'로 되어 있다.
- 6) 八尺之士: 『甲乙』 林 「序」에는 '八尺之軀'로 되어 있다.
- 7) 外可度量切循: 『袁刻本』에는 '外生可度量切循'으로 되어 있다.
- 8) 得之: 『太素』에는 '得也'로 되어 있다.
- 9) 答曰善哉 …… 其死可解剖而視之: 『甲乙』에는 '對曰'로 되어 있다.
- 10) 其藏之堅脆: 『甲乙』에는 '藏之堅脆'로 되어 있다.
- 11) 十二經之多血少氣: 『甲乙』에는 '十二經中多血少氣'로 되어 있다.
- 12) 皆多血氣: 『甲乙』에는 '皆多氣血'로 되어 있다.
- 13) 皆有大數: 『甲乙』에는 '皆有定數'로 되어 있다.
- 14) 其治以鍼灸: 『甲乙』과 『張註本』에는 '其治以鍼灸'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十二經水: 淸水·渭水·海水·湖水·汝水·灑水·淮水·澗水·江水·河水·濟水·漳水の 열두 개의 물길을 말한다.
- (2) 屬: 連續, 어울춤
- (3) 神氣魂魄(신기혼백):
  - ① 神: 廣義로는 人體生命活動의 總稱이

고, 狹義로는 思考, 意識活動을 말한다. 『靈樞·本神』편에 '兩精相搏 謂之神'이라고 하였다.

- ② 魂魄: 精神意識 활동의 일부분. 『靈樞·本神』편에 '隨神往來者 謂之魂 并精而出入者 謂之魂'이라고 하였다.
- (4) 揚: 發也, 필양
- (5) 營: 周廻, 운영할영
- (6) 度: 忖也, 헤아릴탁
- (7) 量: 度也, 헤아릴량
- (8) 六合: 上下·前後·左右의 여섯 방위
- (9) 八尺之士: 보통의 성인. 丹波·白話解에 "「骨度篇」을 살펴보면, 사람의 신장은 실제로 7尺5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이를 일반적으로 말한 것이다. 혹 7尺이라고 하거나 혹 8尺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략적인 것을 말한 것이다."<sup>2)</sup>라고 하였다.
- (10) 切循(절순): '切'은 按壓하는 것을 말하고, '循'은 어떤 부위를 따라서 만져보는 것을 말한다.
- (11) 脆: 小奕, 易斷, 연할취
- (12) 大數: 일정한 표준값<sup>3)</sup>
- (13) 固: 本然詞, 진실로고

【較註】

[1] 受穀而行之 受氣而揚之

楊·馬·景岳·張·譯釋은 "胃는 五穀을 받아 腐熟시켜 小腸으로 전해주니 小腸은 받아들이는 곳이 되고, 小腸은 大腸으로 전해주니 大腸은 전해주는 길이 되고, 大腸은 廣腸으로 전

- 1) 王冰: 『黃帝內經靈樞』, 聚珍倣宋版印本, 中華書局
- 2) ●丹波: 今據本經骨度篇전대 人長其實七尺五寸 而泛言其脩라 或云七尺커나 或云八尺은 舉其大概耳라 ○白話解: 就是指人體而言이라 八尺은 是泛指人體의 長度라
- 3) ●白話解: 一定的標準 ○譯釋: 一般的標準

해주니 廣腸은 전하여 내보내는 것이 되고, 胃의 아래에서 汁을 구별하여 膀胱의 胞로 내보내니 膀胱은 前陰으로 전해주어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것이 되고, 胆은 中精의 官으로 木精 3 습이 있고 저장하여 내보내지 않으니 이것이 곧 六府가 水穀을 받아서 운행하는 것이다. 五府는 三焦와 氣를 공유하므로 六府가 氣를 받음에 있어 三焦가 氣를 운행시키는 근원이 되므로 ‘揚(布揚)’이라고 하였다.”<sup>4)</sup>라고 하였다.

- 4) ●揚: 胃受五穀하야 成熟하고 傳入小腸하니 小腸은 感受也요 小腸은 傳入大腸하니 大腸은 傳導也요 大腸은 傳入廣腸하니 廣腸은 傳出也요 胃下別汁하야 出膀胱之胞하니 傳陰下洩也요 胆爲中精이니 有木精三合하고 藏而不寫하니 此卽府受穀行之者也라 五府는 與三焦로 共氣 故로 六府受氣에 三焦 行之爲原 故로 曰揚也라 ○馬: 六府者는 受五穀而行化之하고 又受穀所化精微之氣 而揚之於藏府者也라 ○景岳: 六府者는 所以受水穀하야 化其精微之氣 而布揚於內外者也라 ○張: 六府는 主行水穀之精氣라 ○譯釋: 六腑는 受納水穀하야 經消化吸收水穀精氣하야 輸送布散于全身이라
- 5) ●揚: 營氣는 從中焦並胃口하야 出上焦之後하니 所謂受氣하야 泌糟粕하고 蒸津液하야 化津液精微하고 注之肺脈中하야 化而爲血하고 流十二脈中하야 以奉生身 故로 生身之貴는 無過血也 故로 營氣는 獨行於十二經하야 導營身 故로 曰營氣라 營氣行經은 如霧者也요 經中血者는 如渠中水也 故로 十二經受血하야 各營也라 ○景岳: 經脈은 猶江河也요 血은 猶水也니 江河는 受水而經營於天下하고 經脈은 受血而運行於周身이라 ○張: 經脈은 受榮血以榮行이라 ○白話解: 經脈은 是運行血液以營養全身的通路라 ○譯釋: 經脈은 受納血液하야 營運于周身이라
- 6) ○揚: 人之八尺之身은 生則觀其皮肉하야 切循色脈이요 死則解其身部하야 視其藏府니 不同天地 故로 可知也라 夫人稟氣受形에 既有七種不同하야 以鍼艾調養에 固有常契니 不可同乎天地無度量也라 ○馬: 天地는 難以度量이나 人身은 尤可剖視라 藏之堅脆와 府之大小와 穀之多少와 脈之長短과 血之清濁과 十二經之氣血多少에 皆有大數하니 其治以鍼艾에 淺深多寡는 宜其盡與十二經水相合也라 ○景岳: 八尺之士는 有形可據니 其生也엔 可度量其外며 其死也엔 可剖視其內 故로 如藏之堅脆 則見於本藏篇이요 府之大小와 穀之

[2] 受血而營之

楊·景岳·張·白話解·譯釋은 “營氣는 中焦를 따라 胃口에 합쳐져 上焦의 뒤로 나오니 이른바 氣를 받아 糟粕을 泌하고 津液을 蒸하여 津液精微를 化生하고 肺脈 중에 注하여 變化하여 血이 되고 十二經脈 중으로 흘러 人체를 奉養하므로 살아있는 몸에 血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므로 營氣는 홀로 十二經을 運行하여

多少 則見於平人絕穀篇이요 脈之長短 則見於脈度篇이요 血之清濁 則見於根結篇이요 十二經血氣多少各有大數 則見於血氣形志等篇이니 此其鍼艾에 淺深多寡 故로 各有所宜가 如下文也라 ●張: 有形之皮肉筋骨은 外可度量切循이며 內可解剖而視라 其於藏之堅脆와 府之大小와 穀之多少와 脈之長短과 血之清濁과 氣之多少와 十二經之多血少氣와 多氣少血과 血氣皆多와 血氣皆少는 皆有大數니 大數者는 卽本藏篇之五藏堅脆와 腸胃篇府之大小와 絕穀篇穀之多少와 脈度篇脈之長短과 九鍼篇之多血少氣와 多氣少血이니 皆有數推之라 其治以鍼艾하야 調其精氣에 固其常有合于數者는 卽下文之六分五分十呼七呼로 以至於二呼一呼라 此手足陰陽이 皆有合于數也라 ○白話解: 倘從人長八尺有形的軀體來說 則有皮有肉하니 他的深淺廣狹은 在體表上可以用一定的尺度去測量하고 用手指去切按하야 循沿着不同部位探摸而計算出來요 死了엔 在尸體上也可以通過解剖來詳細觀察이라 至于在生理功能方面엔 五臟器質의 健強與虛弱과 六腑形態의 或大或小와 每一臟腑受納營養物質의 或多或少와 每條經脈의 或長或短과 血液의 或清或濁과 氣分의 活動力量或多或少와 以及十二經脈中有的是多血少氣와 有的是少血多氣와 有的是血氣皆多와 有的是血氣皆少等等은 都有一定的標準이라 如發生病變時에 用深淺不同的針法커나 或大小不同的艾炷하야 來進行治療에 各盡其宜하야 以調和經氣的虛實이라 至于針灸의 淺深多寡에 那是完全可以和十二河流深淺遠近等情況配合起來의이라 ○譯釋: 人的身體는 皮肉俱在니 可從外部計算測量하고 用手指切按而獲得各部的情況이요 死了以後可以通過解剖來觀察內在的情況이라 人體五臟의 堅脆와 六腑의 大小와 納穀의 多少와 脈道의 長短과 血液의 清濁과 氣의 多少와 以及十二經是多血少氣와 少血多氣와 氣血皆多와 還是氣血皆少等情況은 都有一般的標準이라 運用針刺艾灸治病은 調節各經의 經氣니 也都有一定規律의이라

<表 3>

cf) 絶穀: 「平人絶穀」篇, 腸胃: 「腸胃」篇

	篇	胃	小腸	廻腸	廣腸	全體
大	絶穀	1尺5寸	2寸半	4寸	8寸	
	腸胃	上同	上同	上同	上同	
徑	絶穀	5寸	8分分之少半	1寸寸之少半	2寸寸之大半	
	腸胃	上同	上同	上同	上同	
長	絶穀	2尺6寸	3丈2尺	2丈1尺	2尺8寸	5丈8尺4寸
	腸胃	上同	3丈3尺	上同	上同	
容量	絶穀	3斗5升 穀2斗 水1斗5升	穀2斗4升 水6升3合合之大半	穀1斗 水7升半	穀9升3合 8分	9斗2升1合合 之大半

신체를 引導, 運營하므로 營氣라고 한다. 營氣가 經脈을 운행하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經脈 중에 血은 도량의 물과 같으므로 十二經脈이 血을 받아 각각 營養하는 것이다.<sup>65)</sup>라고 하였다.

[3] 八尺之士 皮肉在此 外可度量切循而得之 其死 可解剖而視之 其藏之堅脆 府之大小 穀之多少 脈之長短 血之清濁 氣之多少 十二經之多血少氣 與其少血多氣 與其皆多血氣 與其皆少血氣 皆有大數 其治以鍼艾 各調其經氣 固其常有合乎

楊·馬·景岳·張·白話解·譯釋은 “형체가 있는 皮肉, 筋骨은 밖으로 度量하는 것과 진맥하고 만져보는 것을 할 수 있고 안으로 해부하여 볼 수 있다. 五藏의 견고함과 취약함과 六府의 크고 작음과 水穀의 많고 적음과 脈의 길고 짧음과 血의 맑고 탁함과 氣의 많고 적음과 十二經의 多血少氣와 多氣少血과 多血多氣와 少血少氣는 모두 일정한 표준값이 있으니 이 표준값은 곧 「本藏篇」의 五藏의 견고함과 취약함과 「腸胃篇」의 府의 크고 작음과 「平人絶穀篇」의 水穀의 많고 적음과 「脈度篇」의 脈의 길고 짧음과 「九鍼篇」의 多血少氣와 多氣少血이니 모두 數로 推算한 것이 있다. 鍼艾로써 치료하여 精氣를 조절함에 있어 진실로 항상 數에 합치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즉 아래의 6分, 5分, 10呼, 7呼와 2呼, 1呼니 이것

이 手足陰陽經이 모두 數에 합치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sup>66)</sup>라고 하였다.

【考察】

‘外可度量切循’에 있어, 『袁刻本』에는 ‘外生可度量切循’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이어지는 ‘其死可解剖而視之’와 對句가 되는 문장이니 『袁刻本』의 ‘生’字가 있는 것이 뒤 문장의 ‘死’字와 대비되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다.

‘藏之堅脆’는 『靈樞·本藏』에 그 내용이 있고 요약하면 表3과 같다.

‘脈之長短’은 『靈樞·脈度』에 그 내용이 있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經脈	走行	길이
手之六陽	從手至頭	각 5尺 × 6 = 3丈
手之六陰	從手至胸中	각 3尺5寸 × 6 = 2丈1尺
足之六陽	從足上至頭	각 8尺 × 6 = 4丈8尺
足之六陰	從足至胸中	각 6尺5寸 × 6 = 3丈9尺
蹻脈	從足至目	각 7尺5寸 × 2 = 1丈5尺
督脈·任脈		각 4尺5寸 × 2 = 9尺
總合		16丈2尺

‘府之大小 數之多少’는 『靈樞·腸胃』와 『靈樞·平人絕穀』에 그 내용이 있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心	肺	肝	脾	腎
小	赤色小理者	白色小理者	青色小理者	黃色小理者	黑色小理者
	安邪弗能傷易傷以憂	少飲不病喘喝	藏安無脅下之病	藏安難傷於邪也	藏安難傷
大	粗理者				
	憂不能傷易傷于邪	多飲善病痺喉痺逆氣	逼胃迫咽則苦膈中且脅下痛	苦溲眇而痛不能疾行	善病腰痛不可以俛仰易傷以邪
高	無關節者	巨肩反膺陷喉者	廣反散者	揭脣者	高耳者
	滿于肺中愧而善忘難以言	上氣肩息欬	上支賁切脅愧爲息賁	眇引季脅而痛	苦背脊痛不可以俛仰
下	關節小短學者	合腋張脅者	合脅兔散者	脣下縱者	耳後陷者
	藏外易傷于寒易恐以言	居賁迫肺善脅下痛	逼胃脅下空脅下空則易受邪	下加于大腸則藏苦受邪	腰尻痛不可以俛仰爲狐疝
堅	關節長者	好肩背厚者	脅好者	脣堅者	耳堅者
	藏安守固	不病欬上氣	藏安難傷	藏安難傷	不病腰背痛
脆	關節弱小以薄者	肩背薄者	脅骨弱者	脣大而不堅者	耳薄不堅者
	善病消瘴熱中	苦病消瘴易傷	善病消瘴易傷	善病消瘴易傷	苦病消瘴易傷
端正	關節直下不學者	背膺厚者	膺腹好相得者	脣上下好者	耳好前居牙車者
	和利難傷				
偏傾	關節倚一方者	脅偏破者	脅骨偏學者	脣偏學者	耳偏高者
	操持不一無守司也	偏痛也	脅下痛也	善滿善脹也	苦腰尻痛也

<表 5>

책명	六經		太陽		少陽		陽明		少陰		厥陰		太陰	
	氣血多少		血	氣	血	氣	血	氣	血	氣	血	氣	血	氣
素問 血氣形志篇			■	■					■	■			■	■
靈樞 九鍼論			■	■					■	■			■	■
靈樞 五音五味篇			■	■					■	■			■	■
甲乙經 陰陽二十五人形性血氣不同論			■	■					■	■			■	■
甲乙經 任脈篇			■	■					■	■			■	■
太素 任脈篇			■	■					■	■			■	■
太素 知形志所宜篇			■	■					■	■			■	■

cf) 多:□ 少:■

十二經의 氣血多少에 대한 諸文獻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表 5>와 같다.

【直譯】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으시기를, 十二經脈은 밖으로 十二經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五藏六府에 이어지고, 十二經水는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각각 다르고 五藏六府의 위치의 높낮음과 크기와 水穀을 받아들이는 용적도 또한 다른데 어떻게 相應하며, 經水는 물을 운행시키고, 五藏은 神氣魂魄을 모아서 간직하고, 六府는 水穀을 받아들여 운행시키고 氣를 받아서 전신으로 散布하고, 經脈은 血을 받아 運營하는데 어떻게 相合하여 치료합니까? 刺鍼의 깊이와 뜸의 壯數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좋은 질문이십니다. 하늘은 지극히 높아 헤아릴 수 없고 땅은 지극히 넓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天地사이에서 살아가니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8尺정도의 보통사람은 肉身에 있으니 밖으로 살아서는 놀러 보고 어루만져 알 수 있고, 그 죽어서는 解剖하여 살펴볼 수가 있다. 그 藏府의 堅脆大小와 水穀의 용량과 脈의 길고 짧음과 血의 맑고 탁함과 氣의 많고 적음과 十二經의 氣血多少에 모두 標準數值가 있으니 그 鍼灸로써 치료하여 각각 그 經氣를 조절할 때에도 참으로 일정하게 그것과 相合하는 數值가 있습니다.

2. 十二經水

1) 十二經水에 相合하는 經脈과 藏府

【原文】

黃帝 曰余聞之에 快(1)于耳나 不解于心하니 願卒(2)聞之하노이다

岐伯이 答曰1)此는 人之所以參(3)天地而應陰陽也2)니 不可不察3)이라 足太

陽은 外合于淸水4)하고 內屬于膀胱 而 通水道焉이요 足少陽은 外合于渭(4)水하고 內屬于膽이요 足陽明은 外合于海水5)하고 內屬于胃6)이요 足太陰은 外合于湖(5)水하고 內屬于脾이요 足少陰은 外合于汝(6)水하고 內屬于腎이요 足厥陰은 外合于澗7)(7)水하고 內屬于肝이라 手太陽은 外合于淮(8)水하고 內屬于小腸 而水道出焉이요 手少陽은 外合于深(9)水하고 內屬于三焦이요 手陽明은 外合于江水(10)하고 內屬于大腸이요 手太陰은 外合于河水(11)하고 內屬于肺이요 手少陰은 外合于濟(12)水하고 內屬于心이요 手心主는 外合于澮(13)水하고 內屬于心包8)라

【校勘】

- 1) 黃帝曰余聞之 …… 岐伯答曰: 『甲乙』에는 없다.
- 2) 此人之所以參天地而應陰陽也: 『甲乙』에는 '此人之參天地而應陰陽'으로 되어 있다.
- 3) 不可不察: 『甲乙』에는 '不可不審察之也'로 되어 있다.
- 4) 淸水: 본편을 인용한 『素問·雜合眞邪論』 王冰註에는 '瀆水'로 되어 있고, 『太素·營衛氣行』에는 '涇水'로 되어 있다.
- 5) 海水: 『甲乙』에는 '海'로 되어 있다.
- 6) 內屬于胃: 『甲乙』에는 '內屬于腎'으로 되어 있다.
- 7) 澗水: 『太素』에는 '泗水'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快: 稱心, 쾌할쾌
- (2) 卒: 盡也, 다할줄
- (3) 參: 干與, 관여할참
- (4) 渭: 물이름위
- (5) 湖: 물이름호
- (6) 汝: 물이름여

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p.131

- (7) 灑: 물이름승
- (8) 淮: 물이름회
- (9) 漑: 물이름담
- (10) 江水: 양자강(楊子江). 長江 혹은 大江이라고도 함
- (11) 河水: 황하(黃河)
- (12) 濟: 물이름제
- (13) 滌: 물이름장

【校註】

[4] 足太陽 外合于清水 內屬于膀胱 而通水道焉

楊은 “清水는 魏郡 內黃縣에서 發源해서 남쪽으로 清泉縣을 經유하여 東北쪽으로 흘러 河에 들어간다.”<sup>8)</sup>라고 하였고,

馬는 “『古今輿地圖』를 살펴보니 清水에 대한 기록이 없다. 黃河가 淮水에 합해지는 곳을 清河라고 하고, 지금 清河縣이 있으니 아마도 이것이 清水인 것 같다.”<sup>9)</sup>라고 하였고,

景岳은 “이 아래는 經脈을 經水에 配屬한 것이니 대개 그 形象에 근거하여 血氣의 盛衰를 辨別하고자 한 것이다. 足太陽經은 안으로 膀胱에 屬하니 이 經脈은 多血少氣하므로 밖으로 清水와 相合한다. 살펴보면 清水는 곧 大清河·小清河니 『輿地圖志』에 말하기를, 大清河는 곧 濟水의 옛 물길이니 兗州府의 東北쪽으로부터 흘러 長清縣 등으로 나오고 利津 등의 경계를 經유하여 바다로 들어가고, 小清河는 一名 溧水이니 濟南府의 趵突泉에서 發源하여 章丘를 거쳐 溧河의 물을 받고 新城을 經유하여 바다에 들어간다. 『禹貢』편에 濟水와 溧水에 띄워 河에 도달한다고 말한 것이 틀림없이 이 河이다. 지금 모두 山東省 濟南府에

속한다.”<sup>10)</sup>라고 하였고,

張은 “清水는 黃河가 淮水와 합해지는 곳이니 물길이 나뉘어 清河가 된다. 肺는 天에 속하여 氣를 주관하고 膀胱은 津液의 府이고 氣化를 받아 내보내니, 六府는 모두 濁하나 膀胱의 水는 홀로 맑음(淸)으로 足太陽은 밖으로 清水에 합하고 안으로 膀胱에 屬하여 水道를 通한다. 내가 살펴보면 膀胱은 水府이니 津液을 받아 저장하는 것을 주관하고 津液은 三焦가 기운을 내는 것을 따라서 肌肉을 溫養하고, 三焦下俞는 委陽으로 나와 太陽의 正經에 합쳐져 들어가 膀胱에 絡하고 三焦를 約束하니 中焦에서 생기는 津液은 곧 中焦의 氣를 따라서 나오고 膀胱이 간직한 津液은 곧 下焦의 氣를 따라서 나와 膚表를 運행하여 肌肉을 溫養하고 皮膚를 充實히 하므로 『示從容論』에 말하기를, ‘두려워하며 少氣한 것은 水道가 運행되지 못하여 形氣가 消盡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通水道’라고 말한 것은 水道가 위로 天에 통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단지 아래로 내보내는 소변만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sup>11)</sup>라

10) ●景岳: 此下는 以經脈配經水니 蓋欲因其象以辨血氣之盛衰也라 足太陽經은 內屬膀胱하니 是經은 多血少氣 故로 外合於清水라 按컨대 清水는 卽大小清河니 輿地圖志에 曰大清河는 卽濟水之故道니 自兗州府東北流하여 出長清等縣하고 由利津等界로 入海요 小清河는 一名溧水니 源發濟南府趵突泉하여 經章丘하여 受溧河之水하고 由新城入海라 禹貢에 曰浮於濟溧達於河者가 必此河也라 今俱屬山東省濟南府라

11) ●張: 清水는 乃黃河合淮處니 分流爲清河라 肺屬天而主氣하고 膀胱爲津液之府며 受氣化而出하니 六府皆濁 而膀胱之水獨淸 故로 足太陽外合于清水하고 內屬於膀胱而通水道焉이라 愚按컨대 膀胱은 爲水府니 主受藏津液하고 津液은 隨三焦出氣하여 以溫肌肉하고 三焦下俞는 出於委陽하여 并太陽之正하여 入絡膀胱하고 約下焦하니 是中焦所生之津液은 卽隨中焦之氣而出하고 膀胱所藏之津液은 卽隨下焦之氣而出하여 運行于膚表하여 以溫肌肉充皮膚 故로 示從容論에 曰怯然少氣者는 是水道不行하여 形氣消索也라하니 曰通水道

8) ●楊: 清水는 出魏郡內黃縣하여 南經清泉縣하여 東北流入河也라

9) ●馬: 按古今輿地圖컨대 清水는 遺籍無之라 黃河合淮處를 謂之清河요 今有清河縣하니 疑是清水也라

고 하였고,

丹波는 “지금 『水經』을 살펴보면 淸水는 없고 王詠이 『離合眞邪論』을 注釋한데 있어 本節을 인용한 곳에 涇水라고 되어 있다.”<sup>12)</sup>고 하였고,

白話解는 “살펴보면 本節에서 기술한 열두 가지 강은 모두 당시 지도상에 있었던 큰 하천이니 名稱, 面積, 流域과 상호간의 거리 등은 현대 지리학의 위치와 완전히 서로 일치하지는 않으니 주로 역대 이래로 물길이 자주 바뀐 까닭이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들은 이 장의 열두 가지 강의 位置, 發源과 流域 등에 대하여 따로 주석을 하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本節의 重要 精神이 지역적 분포가 다른 열두 가지 강의 물길이 쉬지 않고 두루 돌아 다시 시작하는 淸황을 빌어 人體 十二經의 血氣運行이 河流가 發源과 流域과 縱橫交叉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血氣運行에 있어 出入離合 등의 淸황이 나타나고, 이는 하나의 循環이 끊이지 않는 淸황이라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淸황에 바탕을 두었으면, 여기에 있는 열두 물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十二經脈에 배합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자세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sup>13)</sup>라고 하였다.

者는 謂水道之上通于天역요 非獨下出之洩便也라

- 12) ●丹波: 今考水經컨대 無淸水요 王詠注離合眞邪論에 引本節作涇水라
- 13) ●白話解: 按컨대 本節所述十二條河流는 都是在當時版圖上所有的大川이니 其中的名稱面積流域과 和相互間的距離等等은 與現代地理位置并不完全相同하니 主要也是歷代以來河道의 屢經改變所致라 因此로 我們對本節十二河流의 位置와 發源與流域等等은 亦不另作注釋이라 好在本節의 主要精神이 是借分佈在不同區域의 十二河流가 川流不息하고 周而復始의 淸황하야 來比喻人體十二經의 血氣運行이 等于是河流一樣의 有着發源流域縱橫交叉하야 出入離合等淸황一樣하고 是一個循環不息의 淸황라 基于這一淸황이든 在這里對十二河流는 怎樣具體地配合十二經脈의 問題는 也就無須予闡釋이라

[5] 足少陽 外合于渭水 內屬于膽

楊은 “渭水는 隴西 首陽縣 鳥鼠同穴山으로부터 發源하여 東北쪽으로 華陰에 이르러 黃河에 들어가니 네 개의 郡을 지나고 1870里를 흘러 雍州를 적신다.”<sup>14)</sup>라고 하였고,

馬는 “渭水는 渭州 渭原縣 鳥鼠山에서 發源하여 同州 馮翊縣에 이르러 黃河로 들어간다.”<sup>15)</sup>라고 하였고,

景岳은 “足少陽經은 안으로 膽에 屬하니 보통 少血多氣하므로 밖으로 渭水와 相合한다. 『輿地圖志』를 살펴보면 渭水는 隴西郡 渭源縣 西南의 鳥鼠山으로부터 發源하여 同州에 이르러 黃河로 들어간다. 지금은 모두 陝西省에 붙어 있고, 渭源縣은 臨洮府에 屬하고 同州는 西安府에 屬한다.”<sup>16)</sup>라고 하였고,

張은 “渭水는 雍州로부터 나와 涇水, 汭水, 漆水, 沮水, 沔水에 합하니 渭水는 홀로 맑으니 모든 陽이 모두 濁하니 膽은 中精의 府로 홀로 맑은 것을 받으므로 足少陽은 밖으로 渭水에 합하고 안으로 膽에 屬한다.”<sup>17)</sup>라고 하였고,

丹波는 “張景岳注의 뜻은 적당하지 않고 張志聰이 渭水가 홀로 맑다고 이른 것은 옛날의 설명과 합치하지 않는다. 渭水를 膽에 합한 것에 반드시 별도의 근거가 있을 것이나 지금은 고찰해 볼 수 없다. 아래 節의 여러 강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sup>18)</sup>라고 하였다.

- 14) ●楊: 渭水는 出隴西首陽縣鳥鼠同穴山하야 東北至華陰入河하니 過郡四하고 行一千八百七十里하야 雍州浸也라
- 15) ●馬: 渭水는 原出于渭州渭原縣鳥鼠山하야 至同州馮翊縣入河라
- 16) ●景岳: 足少陽經은 內屬於膽하니 常少血多氣故로 外合于渭水라 按地志컨대 渭水는 出隴西郡渭源縣西南鳥鼠山하야 至同州하야 入河라 今俱隸陝西省하고 渭源는 屬臨洮府하고 同州는 屬西安府라
- 17) ●張: 渭水는 出于雍州하야 合涇泗漆沮沔水 而渭水獨淸하니 諸陽皆濁 而胆爲中精之府니 獨受其淸 故로 足少陽은 外合于渭水하고 內屬於胆이라
- 18) ●丹波: 張景岳注意未允當이요 張志聰云渭水獨

[ 6 ] 足陽明 外合于海水 內屬于胃

楊은 “海는 晦이니 그 물이 넓고 넓어 바라 보면 어렵곳하여 끝나는 곳을 알 수 없으므로 海라고 한다. 海는 곧 四海니 足陽明脈이 血氣가 가장 많아 四海에 비교된 것이니 모든 물의 우두머리이다.”라고 하였고,

馬는 “海水는 天地四方에 모든 海水는 서로 통하고 땅이 그 가운데 있으니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또 四海의 밖에 모두 다시 海가 있으니 동쪽은 渤海이고 남쪽은 漲海이고 서쪽은 青海이고 북쪽은 瀚海니 지금 海의 北이 陰이 된다고 한 것은 瀚海를 말함이다.”<sup>19)</sup>고 하였고,

景岳은 “足陽明經은 안으로 胃에 屬하니 보통 多氣多血하고 五臟六腑의 海가 되므로 밖으로 海水에 合한다. 살펴보건대 바다는 땅의 밖을 싸고 땅은 바다 가운데 있고 海水는 두루 흐르니 실제로는 하나일 따름이나 지금 四海라고 말하는 것은 東·西·南·北으로 나누어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쪽을 渤海라 하고 남쪽을 漲海라 하며 서쪽을 青海라 하고 북쪽을 瀚海라 한다.”<sup>20)</sup>고 하였고,

張은 “海水는 땅 밖에 아득히 넓고 땅은 海의 가운데 있으니 陽明이 中土에 위치하여 萬物이 모여드는 곳이 되고 또 水穀의 海가 되므로 足陽明은 밖으로 海水에 合하고 안으로 胃에 屬한다.”<sup>21)</sup>라고 하였다.

淸은 與古說乖矣라 以渭合膽에 必有別所據나 今不可得而考也라 下節諸水도 亦多不可解者라

- 19) ●馬: 海水는 天地四方皆海水相通 而地在其中 하니 蓋無幾也라 又四海之外에 皆復有海하니 東曰渤海요 南曰漲海요 西曰青海요 北曰瀚海니 今日海北爲陰은 乃瀚海也라
- 20) ●景岳: 足陽明經은 內屬于胃하니 常多氣多血하고 爲五臟六腑之海 故로 外合於海水라 按 컨대 海包地外하며 地在海中하고 海水周流 하니 實一而已나 今云四海者는 以東西南北而分言之也라 故로 東曰渤海요 南曰漲海요 西曰青海요 北曰瀚海라
- 21) ●張: 海水는 汪洋於地之外而地居海之中이니 陽明居中土하야 爲萬物之所歸하고 又爲水穀

[ 7 ] 足太陰 外合于湖水 內屬于脾

楊은 “湖는 마땅히 摩이니 摩陀水是 代郡 鹵城縣으로부터 發源하여 동쪽으로 흘러 아홉 개의 郡을 지나니 1340리를 흐르고 并州川이 된다. 다른 해석에 말하기를, 湖는 마땅히 沽니 沽水是 漁陽郡으로부터 發源하여 東南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가니 750리를 흐른다. 이 두 물길 모두 합함이 된다.”<sup>22)</sup>라고 하였고,

馬는 “湖水는 洞庭, 彭澤, 震澤의 종류이니 모두 湖水가 있다. 지금에 말한 湖水 以北은 陰中의 陰이 된다는 것은 아마도 彭澤인 것 같다.”<sup>23)</sup>라고 하였고,

景岳은 “足太陰經은 안으로 脾에 屬하니 보통 多氣少血하고, 「九鍼論」에서는 多血少氣라 하였으므로 밖으로 湖水에 合한다. 湖는 곧 五湖니 彭蠡·洞庭·巢湖·太湖·鑑湖를 말한 것이다. 五湖는 모두 東南쪽에 있다.”<sup>24)</sup>라고 하였고,

張은 “湖水는 五湖가 있으니 곧 洞庭, 彭澤, 震澤의 종류이다. 脾는 中央에 위치하여 사방으로 灌溉하므로 足太陰은 밖으로 湖水에 合하고 안으로 脾에 屬한다.”<sup>25)</sup>라고 하였고,

丹波는 “湖水는 五湖와는 각기 다르니 『水經』 注釋에, 湖水는 桃林塞의 夸父山에서 發源하고, 또 五湖는 長塘湖, 太湖, 射黃湖, 上湖, 溈湖를 말한다.”<sup>26)</sup>라고 하였다.

之海 故로 足陽明은 外合於海水 而內屬于胃라

- 22) ●楊: 湖는 當爲摩니 摩陀水是 出代郡鹵城縣하야 東流過郡九하니 行千三百四十里하고 爲并州川이라 一解에 云湖當爲沽니 沽水是 出漁陽郡하야 東南入海하니 行七百五十里라 此二水도 亦得爲合也라
- 23) ●馬: 湖水는 凡洞庭彭澤震澤之類니 皆有湖水라 今日湖以北爲陰中之陰은 疑는 彭澤也라
- 24) ●景岳: 足太陰經은 內屬于脾하니 常多氣少血하고 九鍼論에 云多血少氣 故로 外合於湖水라 湖는 卽五湖니 謂彭蠡洞庭巢湖太湖鑑湖也라 五湖는 皆在東南이라
- 25) ●張: 湖水는 有五湖니 卽洞庭彭澤震澤之類라 脾位中央而灌溉於四旁 故로 足太陰은 外合於湖水 而內屬于脾라

[ 8] 足少陰 外合于汝水 內屬于腎

楊은 “汝水是 汝南郡 定陵縣 高陵山에서 發源하여 東南쪽으로 흘러 淮水에 들어가니 네 개의 郡을 지나고 1340里를 흐른다.”<sup>27)</sup>라고 하였고,

馬는 “汝水是 南陽 魯陽縣 天息山에서 發源하여 東北쪽으로 河南 梁縣에 이르고 東南쪽으로 襄城, 潁川, 汝南을 지나 汝陽 襄信縣에 이르러 淮水에 들어간다.”<sup>28)</sup>라고 하였고,

景岳은 “足少陰經은 안으로 腎에 屬하니 보통 少血多氣하므로 밖으로 汝水에 合한다. 살펴보건대 汝水是 汝州의 天息山에서 發源하여 西平縣·上蔡縣·汝陽縣 등을 경유하여 淮水에 들어가니 지금의 河南省 汝寧府에 屬한다.”<sup>29)</sup>라고 하였고,

張은 “汝水是 河南 天息山에서 發源하니 河南은 天地의 가운데 위치한다. 天이 地上에 위치하여 보이는 것은 182½도가 강하고, 地下도 또한 그리하니 北極은 地上 36도로 나오고 南極이 地下로 들어가는 것도 또한 36도이고 嵩山은 바로 天의 中極에 해당하니 天氣는 땅의 밖을 감싸고 또 가운데로 땅속을 관통하므로 ‘天息’이라고 한다. 腎은 天一의 물을 주관하여 生氣의 근원이 되고 위로 숨구멍에 상응하여 呼吸을 주재하므로 足少陰은 밖으로 汝水에 합하고 안으로 腎에 屬한다.”<sup>30)</sup>라고 하였다.

- 26) ●丹波: 湖水與五湖各異니 水經注에 湖水出桃林塞之夸父山이요 又五湖謂長塘湖太湖射黃湖上湖滹湖라
- 27) ●楊: 汝水是 出汝南郡定陵縣高陵山하야 東南流入淮하니 過郡四하고 行一千三百四十里也라
- 28) ●馬: 汝水是 原出南陽魯陽縣天息山하야 東北至河南梁縣하고 東南經襄城潁川汝南하야 至汝陽襄信縣入淮라
- 29) ●景岳: 足少陰經은 內屬于腎하니 常少血多氣故로 外合於汝水라 按컨대 汝水是 源出汝州天息山하야 由西平上蔡汝陽等縣으로 入淮하니 今屬河南省汝寧府라
- 30) ●張: 汝水是 發源於河南天息山하니 河南은 居天地之中이라 夫天居地上見者는 一百八十二

[ 9] 足厥陰 外合于澠水 內屬於肝

楊은 “澠水是 武郡 番冢山에서 發源하여 동쪽으로 흘러 楊子江에 들어간다.”<sup>31)</sup>라고 하였고,

馬는 “澠水是 지금 汝南府 澠池縣에 있다.”<sup>32)</sup>라고 하였고,

景岳은 “足厥陰經은 안으로 肝에 屬하니 보통 多血少氣하므로 밖으로 澠水에 合한다. 살펴보건대 澠水是 곧 澗水니, 新安縣 東北 白石山에서 發源하여 澠池·新安의 사이를 경유하여 洛水에 들어가며 洛水是 黃河에 들어간다. 지금의 河南省 河南府에 屬한다.”<sup>33)</sup>라고 하였고,

張은 “澠水是 青州의 臨淄에서 發源하여 서쪽으로 淮水에 합하니 天下의 물은 모두 동쪽으로 사라지나 澠水是 동쪽으로부터 오므로 足厥陰으로 東方의 肝木에 응한다.”<sup>34)</sup>라고 하였다.

[10] 手太陽 外合于淮水 內屬于小腸 而水道出焉

楊은 “淮水是 南陽郡 平武縣 桐柏山에서 發源하여 東南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가니 네 개의 郡을 지나고 3240里를 흐른다.”<sup>35)</sup>고 하였고,

馬는 “淮水是 南陽 桐栢山으로부터 發源하

度半強이며 地下亦然이요 北極은 出地上三十六度요 南極入地下도 亦三十六度 而嵩은 正當天之中極이니 蓋天氣는 包於地之外하고 又從中而通貫於地中 故로 名天息이라 腎主天一之水 而爲生氣之原이며 上應於喉하야 以司呼吸 故로 足少陰外合於汝水 而內屬于腎이라

- 31) ●楊: 澠水是 出武郡番冢山하야 東流入江也라
- 32) ●馬: 澠水是 在今汝南府澠池縣이라
- 33) ●景岳: 足厥陰經은 內屬于肝하니 常多血少氣故로 外合於澠水라 按컨대 澠水是 卽澗水니 源出新安縣東北白石山하야 由澠池新安之間으로 入洛 而洛入於河也라 今屬河南省河南府라 澠은 音免이라
- 34) ●張: 澠水是 出於青州之臨淄而西入於淮하니 天下之水가 皆從東去하나 澠水是 自東而來故로 應足厥陰東方之肝木이라
- 35) ●楊: 淮水是 出南陽郡平武縣桐栢山하야 東南流入海하니 過郡四하고 行三千二百四十里也라

여 徐州와 揚州의 경계를 감아돌아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sup>36)</sup>라고 하였고,

景岳은 “手太陽經은 안으로 小腸에 屬하니 보통 多血少氣하므로 밖으로 淮水에 合한다. 살펴보건대 淮水는 唐州의 桐栢山에서 發源하여 徐州와 揚州의 경계를 감아돌아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가니 지금의 河南省 南陽府에 속하고 唐縣으로 이름이 바뀌었다.”<sup>37)</sup>고 하였고,

張은 “淮水는 海水로부터 淮泗에 들어가니 小腸이 胃의 水液을 받아 담아들여 膀胱으로 泌別淸濁함으로 手太陽은 밖으로 淮水에 合하고 안으로 小腸에 屬한다.”<sup>38)</sup>라고 하였고,

丹波는 “膀胱은 水道를 疏通하고 小腸은 胃의 水液을 받아들여 膀胱으로 泌別淸濁하므로 이 두 府를 특별히 언급한 것이다.”<sup>39)</sup>라고 하였고,

白話解는 “‘通水道焉’은 全身을 運行하는 水液의 道路와 相通하는 것을 말한다. 小腸의 作用은 分別淸濁을 주관하여 飲食物이 변화하여 생긴 糟粕중에 水液을 膀胱으로 내보내는 것이다.”<sup>40)</sup>라고 하였다.

[11] 手少陽 外合于溧水 內屬于三焦

楊은 “溧水는 平原郡에서 發源하여 東北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또 河內도 또한 溧水가 있으니 王屋山에서 發源하여 東南쪽으로 흘러 黃河로 들어간다. 이 두 물길 모두 합함이 된다.”<sup>41)</sup>라고 하였고,

馬는 “溧水는 옛날에는 溧水가 黃河를 받아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갔으므로 「禹貢」편에 溧水에 배를 띄워 黃河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漢시대 이후로 黃河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여 溧水도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sup>42)</sup>라고 하였고,

景岳은 “手少陽經은 안으로 三焦에 屬하니 보통 少血多氣하므로 밖으로 溧水에 合한다. 살펴보건대 溧水는 章丘 長白山에서 發源하여 小清河로 들어가 바다로 돌아가니 지금의 山東省 濟南府이다.”<sup>43)</sup>라고 하였고,

張은 “溧水와 濟水는 西北쪽의 큰 물길로 溧水는 濟水와 合하여 兗州, 豫州로 들어가니 少陽이 君主의 재상이 되어 陰陽이 서로 합하므로 手少陽은 溧水에 合하고 안으로 三焦에 屬한다.”<sup>44)</sup>라고 하였다.

[12] 手陽明 外合于江水 內屬于大腸

楊은 “楊子江은 蜀 岷山郡 升遷縣에서 發源하여 東南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 아홉 개의 郡을 지나고 7660리를 흐른다.”<sup>45)</sup>라고 하였고,

馬는 “楊子江은 西蜀의 岷山에서 發源하여 吳 땅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 길이는 萬리이고 하늘이 참으로 중국의 南北을 나눈 것이다.”<sup>46)</sup>라고 하였고,

36) ●馬: 淮水는 原出南陽桐栢山하야 圍繞徐揚之界하야 東入於海라

37) ●景岳: 手太陽經은 內屬小腸하니 常多血少氣故로 外合於淮水라 按컨대 淮水는 出唐州桐栢山하야 繞徐揚之界하야 東入於海하니 今屬河南省南陽府하고 改名唐縣이라

38) ●張: 淮水는 自海水而入於淮泗하니 小腸이 受盛胃之水液 而濟泌於膀胱 故로 手太陽外合于淮水하고 內屬於小腸이라

39) ●丹波: 膀胱通水道 而小腸受盛胃之水液 而濟泌于膀胱 故로 二府特言及之라

40) ●白話解: 通水道焉은 與全身運行水液의 道路相通이라 小腸腑의 作用은 主分別淸濁하야 能將飲食物所化의 糟粕中의 水液歸于膀胱이라

41) ●楊: 溧水는 出平原郡하야 東北流入於海라 又河內도 亦有溧水하니 出王屋山하야 東南流入河라 此二水도 並得爲合也라

42) ●馬: 溧水는 古溧受河而東入海 故로 禹貢에 浮溧하야 可以入河라하니 自漢以後에 河漸南徙而溧亦不復存이라

43) ●景岳: 手少陽經은 內屬三焦하니 常少血多氣故로 外合於溧水라 按컨대 溧水는 源出章丘長白山하고 入小清河하야 歸海하니 今屬山東省濟南府라

44) ●張: 溧濟는 乃西北之大水며 溧合濟而入於兗豫諸州하니 少陽이 爲君主之相하야 陰陽相合 故로 手少陽合于溧水 而內屬於三焦라

45) ●楊: 江水는 出蜀岷山郡升遷縣하야 東南流入海하니 過郡九하고 行七千六百六十里也라

景岳은 “手陽明經은 안으로 大腸에 屬하니 보통 多血多氣하므로 밖으로 楊子江에 합한다. 살펴보건대 楊子江은 西蜀의 岷山에서 發源하니 지금의 四川省 成都府 茂州에 속한다. 그 길이가 萬리며 뭇 땅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이 강이 중국의 南北을 나누는 것이다.”<sup>47)</sup>하였고,

張은 “楊子江은 西屬의 岷山으로부터 發源하여 萬리를 굽이쳐서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가니 大腸은 水穀을 傳道하여 濟泌別汁하고 廻腸은 열두 번 굽이쳐서 膀胱으로 滲入하므로 手陽明은 밖으로 楊子江에 합하고 안으로 大腸에 屬한다.”<sup>48)</sup>라고 하였다.

[13] 手太陰 外合于河水 內屬于肺

楊은 “黃河는 崑崙山 東北쪽 모서리에서 發源하고 다시 潛行하여 蔥嶺 于闐國에 이르고 積石山에 도달하여 東北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 16개의 郡을 지나고 9400리를 흐른다.”<sup>49)</sup>라고 하였고,

馬는 “黃河는 두 發源이 있으니 하나는 葱嶺에서 發源하고 하나는 于闐에서 發源한다. 두 물길이 합하여 동쪽으로 蒲昌海에 이르고 땅속을 潛行하여 남쪽 積石으로 나와 中國의 黃河가 된다. 또 말하기를, 黃河는 崑崙에서 發源하여 千리를 흐르는 동안 한번 굽이치며 아홉 번 굽이쳐서 바다에 들어가고 千年에 한번 물이 맑아

지면 聖인이 나타나므로 4대강의 으뜸이 된다.”<sup>50)</sup>라고 하였고,

景岳은 “手太陰經은 안으로 肺에 屬하니 보통 多氣少血하고 肺는 臟腑의 鬲개가 되니 그 經脈이 가장 높고 百脉을 朝會하므로 밖으로 黃河에 합한다. 살펴보건대 黃河는 두개의 發源이 있으니 하나는 蔥嶺에서 發源하고 하나는 于闐에서 發源한다. 두 물길이 합하여 東으로 蒲昌海로 흐르고 땅속으로 潛行하여 남쪽 積石으로 나와 中國으로 들어온다. 일설에 黃河는 星宿海에서 發源한다고 하니 이곳은 中國의 西南쪽에 있으니 바로 四川 馬湖府의 正西쪽 3000여 리와 雲南 麗江府의 西北쪽 1500여 리이다. 여러 물길이 합해져 서쪽에서 동쪽으로 20일을 흘러 崑崙에 이르고 崑崙의 西南쪽을 감아돌아 굽이 쳐서 東北쪽으로 흐르고 또 굽이 쳐서 西北쪽으로 흐르고 또 돌아서 東北쪽으로 흘러서 또다시 20여 일을 흐르고 震中·九原을 지나서 大寧에 이르러 비로소 中國에 들어오니 4대강의 으뜸이 된다.”<sup>51)</sup>라고 하였고,

張은 “黃河는 星宿海에서 發源하니 乾의 위치로부터 와서 千리를 흐르는 동안 한번 굽이치므로 黃河의 물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고, 肺는 乾金에 속하여 天을 주관하여 水를

46) ●馬: 江水는 源出西蜀之岷山하야 至吳地入海하니 其長萬里요 天固所以限南北也라

47) ●景岳: 手陽明經은 內屬大腸하니 常多血多氣故로 外合於江水라 按컨대 江은 源出西蜀之岷山하니 今屬四川省成都府茂州라 其長萬里요 至吳地하야 入海하니 此卽所以限南北也라

48) ●張: 江水는 自西屬之岷山發源하야 曲折萬里而東入於海하니 大腸이 傳道水穀하야 濟泌別汁하고 廻腸이 十二折而滲入膀胱故로 手陽明外合於江水하고 內屬於大腸이라

49) ●楊: 河水는 出崑崙山東北隅하고 便潛行하야 至蔥嶺於闐國하고 到積石山하야 東北流入海하니 過郡十六하고 行九千四百里也라

50) ●馬: 河水는 河有兩源하니 一出蔥嶺하고 一出于闐이라 合流하야 東至蒲昌海하고 潛行地中하야 南出積石하야 爲中國河라 又云河出崑崙하야 千里一曲하며 九曲入海하고 千年一淸하면 聖人出焉 故로 爲四瀆之宗이라

51) ●景岳: 手太陰經은 內屬於肺하니 常多氣少血하고 肺爲藏府之蓋니 其經最高而朝百脉故로 外合於河水라 按컨대 河有兩源하니 一出蔥嶺하고 一出於闐이라 合流하야 東注蒲昌海하고 潛行地中하야 南出積石以入中國이라 一說에 黃河는 源出星宿海니 在中國西南이요 直四川馬湖府之正西三千餘리며 雲南麗江府之西北一千五百餘리라 合諸流하야 自西而東行二十日하야 至崑崙하고 繞崑崙之西南하야 折而東北하고 又折而西北하고 又轉而東北하야 又行二十餘日하고 歷雲中九原하야 至大寧하야 始入中國하니 是爲四瀆之宗이라

生하는 根源이 되므로 手太陰은 밖으로 黃河에 합하고 안으로 肺에 屬한다.”52)라고 하였다.

[14] 手少陰 外合于濟水 內屬于心

楊은 “濟水는 河東 恆縣에서 發源하여 王屋山에 이르고 東北쪽으로 흘러 黃河에 들어간다.”53)라고 하였고,

馬는 “濟水는 곧 沈水니 河北 王屋山에서 發源하여 黃河를 건너서 남쪽으로 흐르므로 또 濟水라고 한다. 黃河를 끊어서 흐르나 물이 그 맑음을 더럽히지 않으므로 또한 淸濟라고도 하니 濟水는 잠복하여 흐르고 흐름이 자주 끊어져 모습이 비록 미미하나 유독 존귀하게 여겨져 4대강의 하나를 차지한다.”54)라고 하였고,

景岳은 “手少陰經은 안으로 心에 屬하니 보통 少血多氣하므로 밖으로 濟水에 합한다. 살펴보건대 江의 根源이 王屋山 아래에서 처음 發源하니 沈水라 하고 나타났다가 잠행하고 다시 나와서 濟水가 된다. 濟水는 黃河를 끊고 흐르나 그 맑음을 더럽히지 않으므로 또한 ‘淸濟’라고 하니 흐름이 비록 미미하나 유독 존귀하게 여겨져 4대강의 하나로 되었다. 지금의 河南省 懷慶府 濟源縣에 속한다.”55)라고 하였고,

張은 “濟水는 王屋山에서 發源하여 黃河를 끊어서 흐르나 물이 그 맑음을 더럽히지 않

므로 淸濟라고 하니 濟水는 잠복하여 흐르고 흐름이 자주 끊어져 모습이 비록 미미하나 유독 존귀하게 여겨져 4대강의 하나를 차지한다. 心은 君主의 官이어서 홀로 존귀하므로 手少陰은 밖으로 濟水에 합하고 안으로 心에 屬한다.”56)라고 하였다.

[15] 手心主 外合于漳水 內屬于心包

楊은 “漳水는 淸漳水이니 上黨 沽縣 西北쪽의 작은 산으로부터 發源하여 동쪽으로 흘러 濁漳에 합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濁漳을 살펴보건대 濁漳은 上黨 長子縣 서쪽 發鳩山에서 發源하여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57)라고 하였고,

馬는 “漳水는 西山에서 發源하여 磁州와 洛州를 경유하여 남쪽으로 冀州 新河鎮으로 들어가서 河盧河와 합한 후에 이동하여 黃河로 들어간다.”58)라고 하였고,

景岳은 “手厥陰經은 안으로 心主에 屬하니 보통 多血少氣하므로 밖으로 漳水에 합한다. 살펴보건대 漳水는 둘이 있으니 하나는 上黨 沽縣 大眼谷에서 發源하니 淸漳이라 하고, 하나는 上黨 長子縣 發鳩山에서 發源하니 濁漳이라고 한다. 모두 黃河로 들어가며 지금은 모두 山西省에 붙어 있고, 沽縣은 곧 樂平縣으로 太原府에 속하며 長子縣은 潞安府에 속한다.”59)라고 하였고,

52) ●張: 河源은 發於星宿海하니 自乾位而來하여 千里一曲 故로 曰黃河之水는 天上來라하고 肺屬乾金而主天하여 爲水之生源 故로 手太陰外合於河水 而內屬於肺라

53) ●楊: 濟水는 出河東恆縣하여 至王屋山하고 東北流入於河라

54) ●馬: 濟水는 卽沈水니 源出河北王屋山하여 濟河而南 故又曰濟라 截河而流하여 水不混其淸 故로 又曰淸濟라하니 潛流屢絕하여 狀雖微而獨尊 故로 居四瀆之一이라

55) ●景岳: 手少陰經은 內屬於心하니 常少血多氣 故로 外合於濟水라 按건대 江源初發王屋山下하니 曰沈水요 旣見而伏하고 復出爲濟라 濟는 截河而流하나 不混其淸 故로 又曰淸濟니 流雖微而獨尊 故로 居四瀆之一이라 今屬河南省懷慶府濟源縣이라

56) ●張: 濟水는 發源於王屋山하여 截河而流하나 水不昏其淸 故로 名曰淸濟니 潛流屢絕하여 狀雖微而獨尊 故로 居四瀆之一이라 心爲君主之官而獨尊 故로 手少陰外合濟水하고 內屬於心이라

57) ●楊: 漳水는 淸漳水也니 出上黨沽縣西北少山하여 東流合濁漳하여 入於海라 解是濁漳 건대 濁漳은 出於上黨長子縣西發鳩山하여 東流入海也라

58) ●馬: 漳水는 源出西山하여 由磁洛州 而南入冀州新河鎮하여 與河盧河合하고 其後變徙入於河라

59) ●景岳: 手厥陰經은 內屬心主하니 常多血少氣

張은 “漳水是 둘이 있으니 하나는 上黨 沾縣 大睪谷에서 發源하니 淸漳이라 하고 하나는 上黨 長子縣 鹿角山에서 發源하니 毒漳이라 한다. 이 두 漳水是 發源은 다르지만 下流에서 서로 합쳐진다. 血은 神氣로 陰 중에 맑은 것이니 心이 주관하는 바이고 手厥陰 心包絡과 합해져 經脈의 가운데를 운행하니 두 漳水가 흐름을 합치는 것과 같으므로 手心主는 밖으로 漳水에 합하고 안으로 心包에 屬한다.”<sup>60)</sup>라고 하였다.

【考察】

諸家の 十二經水에 대한 註釋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淸水]

楊	出魏郡內黃縣하야 南經淸泉縣하야 東北流入河也라
馬	黃河合淮處를 謂之淸河요 今有淸河縣하니 疑是淸水也라
景岳	大小淸河니 輿地圖志에 曰大淸河는 卽濟水之故道니 自兗州府東北流하야 出長淸等縣하고 由利津等界로 入海요 小淸河는 一名灤水니 源發濟南府 趵突泉하야 經章丘하야 受灤河之水하고 由新城入海라 …… 今俱屬山東省濟南府라
張	黃河合淮處니 分流爲淸河라
丹波	王砮注離合眞邪論에 引本節作溼水라

故로 外合於漳水라 按컨대 漳水有二하니 一出上黨沾縣大睪谷하니 曰淸漳이며 一出上黨長子縣發鳩山하니 曰濁漳이요 皆入於河라 今俱隸山西省하고 沾縣은 卽樂平縣이니 屬太原府요 長子縣은 屬潞安府라

60) ●張: 漳水是 有二하니 一出於上黨沾縣大睪谷하니 名爲淸漳이요 一出上黨長子縣鹿角山하니 名爲濁漳이라 二漳異源 而下流相合이라 夫血者神氣며 陰中之淸이니 心所主也요 合厥陰包絡而流行於經脈之中하니 猶二水之合流 故로 手心主는 外合於漳水하고 內屬於心包라

[渭水]

楊	出隴西首陽縣鳥鼠同穴山하야 東北至華陰入河하니 過郡四하고 行一千八百七十里하야 雍州浸也라
馬	原出於渭州渭原縣鳥鼠山하야 至同州馮翊縣入河라
景岳	出隴西郡渭源縣西南鳥鼠山하야 至同州하야 入河라 今隸陝西省하고 渭源은 屬臨洮府하고 同州는 屬西安府라
張	出于雍州하야 合涇汭漆沮沔水이라

[湖水]

楊	湖는 當爲庠니 庠陀水는 出代郡幽城縣하야 東流過郡九하니 行千三百四十里하고 爲并州川이라 一解에 云湖當爲沽니 沽水는 出漁陽郡하야 東南入海하니 行七百五十里라
馬	湖水는 凡洞庭彭澤震澤之類니 皆有湖水라 今曰湖以北爲陰中之陰은 疑是彭澤也라
景岳	湖는 卽五湖니 謂彭蠡洞庭巢湖太湖鑑湖也라 五湖는 皆在東南이라
張	湖水는 有五湖니 卽洞庭彭澤震澤之類라
丹波	湖水與五湖各異니 水經注에 湖水出桃林塞之夸父山이요 又五湖謂長塘湖太湖射黃湖上湖溈湖라

[海水]

楊	東曰渤海요 南曰漲海요 西曰青海요 北曰瀚海니 今曰海北爲陰은 乃瀚海也라
景岳	海包地外하며 地在海中하고 海水周流하니 實一而已나 今云四海者는 以東西南北而分言之也라 故로 東曰渤海요 南曰漲海요 西曰青海요 北曰瀚海라

[汝水]

楊	出汝南郡定陵縣高陵山하야 東南流入淮하니 過郡四하고 行一千三百四十里也라
馬	原出南陽魯陽縣天息山하야 東北至河南梁縣하고 東南經襄城潁川汝南하야 至汝陽褒信縣入淮라
景岳	源出汝州天息山하야 由西平上蔡汝陽等縣으로 入淮하니 今屬河南省汝寧府라
張	發源於河南天息山이라

[澗水]

楊	沔水는 出武郡番冢山하야 東流入江也라
馬	在今汝南府澗池縣이라
景岳	澗水니 源出新安縣東北白石山하야 由澗池新安之間으로 入洛 而洛入於河也라 今屬河南省河南府라
張	出於青州之臨淄而西入於淮이라

[淮水]

楊	出南陽郡平武縣桐栢山하야 東南流入海하니 過郡四하고 行三千二百四十里也라
馬	原出南陽桐栢山하야 圍繞徐揚之界하야 東入於海라
景岳	出唐州桐栢山하야 繞徐揚之界하야 東入於海하니 今屬河南省南陽府하고 改名唐縣이라
張	自海水而入於淮泗라

[漯水]

楊	出平原郡하야 東北流入於海라 又河內도 亦有漯水하니 出王屋山하야 東南流入河라
馬	古漯이니 受河而東入海라
景岳	源出章丘長白山하고 入小清河하야 歸海하니 今屬山東省濟南府라
張	西北之大水니 漯合濟而入於兗豫諸州라

[江水]

楊	出蜀岷山郡升遷縣하야 東南流入海하니 過郡九하고 行七千六百六十里也라
馬	源出西蜀之岷山하야 至吳地入海라
景岳	源出西蜀之岷山하니 今屬四川省成都府茂州라 其長萬里며 至吳地하야 入海라
張	自西屬之岷山發源하야 曲折萬里而東入於海라

[河水]

楊	出崑崙山東北隅하고 便潛行하야 至蔥嶺於闐國하고 到積石山하야 東北流入海하니 過郡十六하고 行九千四百里也라
馬	河有兩源하니 一出葱嶺하고 一出于闐이라 合流하야 東至蒲昌海하고 潛行地中하야 南出積石하야 爲中國河라
景岳	河有兩源하니 一出葱嶺하고 一出於闐이라 合流하야 東注蒲昌海하고 潛行地中하야 南出積石以入中國이라 一說에 黃河는 源出星宿海하니 在中國西南이요 直四川馬湖府之正西三千餘里며 雲南麗江府之西北一千五百餘里라 合諸流하야 自西而東行二十日하야 至崑崙하고 繞崑崙之西南하야 折而東北하고 又折而西北하고 又轉而東北하야 又行二十餘日하고 歷雲中九原하야 至大寧하야 始入中國이라
張	河源은 發於星宿海라

[濟水]

楊	出河東恆縣하야 至王屋山하고 東北流入於河라
馬	沬水니 源出河北王屋山하야 濟河而南 故又曰濟라
景岳	江源初發王屋山下하니 曰沬水요 既見而伏하고 復出爲濟라 …… 今屬河南省懷慶府濟源縣이라
張	發源於王屋山이라

[漳水]

楊	清漳水也니 出上黨沽縣西北少山하야 東流合濁漳하야 入於海라 解是濁漳컨대 濁漳은 出於上黨長子縣西發鳩山하야 東流入海也라
馬	源出西山하야 由磁洛州 而南入冀州 新河鎮하야 與河盧河合하고 其後變徙入於河라
景岳	漳水有二니 一出上黨沽縣大甗谷하니 曰清漳이요 一出上黨長子縣發鳩山하니 曰濁漳이며 皆入於河라 今俱隸山西省하고 沽縣은 卽樂平縣이니 屬太原府요 長子縣은 屬潞安府라
張	漳水는 有二니 一出於上黨沽縣大甗谷하니 名爲清漳이요 一出上黨長子縣鹿角山하니 名爲毒漳이니 二漳異源 而下流相合이라

『內經』의 著作年代는 현재 確實히 考證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戰國에서 秦漢 사이 時代의 작품이라고 여긴다<sup>61)</sup>. 그러므로 十二經水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戰國時代地圖를 收錄하였다.

戰國時代地圖<sup>1)</sup>



61)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p40

十二經水가 十二經脈에 相應하는 이유를 景岳과 張만이 註釋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足太陽 外合于清水 內屬于膀胱’에 있어, 景岳은 足太陽經이 多血少氣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十二經脈의 氣血多少로 설명하였고 나머지 經水도 이와 같다. 張은 六府는 모두 濁하나 膀胱의 水는 홀로 맑음(淸)으로 足太陽經이 맑은 淸水에 배합한다고 하였다.

‘足少陽 外合于渭水 內屬于膽’에 있어, 張은 모든 陽이 濁하나 膽은 中精의 府로 홀로 맑은 것을 받으므로 足少陽經이 여러 물질을 받으나 맑은 渭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足陽明 外合于海水 內屬于胃’에 있어, 景岳은 足陽明經이 多氣多血하고 胃가 五臟六腑의 海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張은 陽明이 中土에 위치하여 萬물이 모이고 또 水穀의 海가 되므로 足陽明이 땅을 둘러싸고 모든 물이 합쳐지는 海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足太陰 外合于湖水 內屬于脾’에 있어, 張은 脾는 中央에 위치하여 사방으로 灌溉하므로 足太陰이 사방으로 灌溉하는 湖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足少陰 外合于汝水 內屬于腎’에 있어, 張은 腎이 天一의 水를 주관하여 生氣의 근원이 되고 위로 喉에 상응하여 呼吸을 주재하므로 足少陰이 發源이 天息인 汝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足厥陰 外合于澗水 內屬于肝’에 있어, 張은 모든 강이 모두 동쪽으로 흐르나 澗水는 동쪽으로부터 오므로 東方의 肝木인 足厥陰에 합한다고 하였다.

‘手太陽 外合于淮水 內屬于小腸’에 있어, 張은 小腸이 胃의 水液을 받아 담아들여 膀胱으로 스며드니 手太陽이 海水로 들어갔다 淮泗에 들어가는 淮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手少陽 外合于漯水 內屬于三焦’에 있어, 張은 少陽이 君主의 재상이 되어 陰陽이 서로 합하므로, 手少陽經이 心에 해당하는 濟水와

합쳐지는 潔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手陽明 外合于江水 內屬于大腸’에 있어, 張은 大腸은 水穀을 傳道하여 濟泌別汁하고 廻腸은 열두 번 굽이쳐서 膀胱으로 滲入하므로 手陽明經이 萬里를 굽이쳐서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江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手太陰 外合于河水 內屬于肺’에 있어, 景岳은 手太陰經은 안으로 肺에 屬하니 보통 多氣少血하고 肺는 臟腑의 根개가 되니 그 經脈이 가장 높고 百脉을 朝會하므로 四瀆의 으뜸이고 가장 긴 黃河에 합한다고 하였고, 張은 肺는 乾金에 속하여 天을 주관하여 水를 생하는 根源이 되므로 手太陰經이 乾의 위치로부터 와서 千里를 흐르는 동안 한번 굽이치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물이라는 河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手少陰 外合于濟水 內屬于心’에 있어, 張은 心은 君主의 官이어서 홀로 존귀하므로, 手少陰經이 잠복하여 흐르고 흐름이 자주 끊어져 모습이 비록 미미하나 유독 존귀하게 여겨져 4대강의 하나를 차지하는 濟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手心主 外合于漳水 內屬于心包’에 있어, 張은 血은 神氣로 陰 중에 맑은 것이니 心이 주관하는 바이고 手厥陰心包絡과 합해져 經脈의 가운데를 운행하니 두 漳水가 흐름을 합치는 것과 같으므로 手心主가 漳水에 합한다고 하였다.

‘水道出焉’에 있어, 張·丹波는 ‘濟泌于膀胱’이라고 하여 小腸이 胃에서 水穀을 받고 이 水穀이 변화하여 생긴 糟粕중에 탁한 부분을 大腸으로 맑은 水液을 膀胱으로 보내주는 泌別清濁의 기능으로 보았고, 白話解도 ‘分別清濁’이라고 용어에 있어서는 틀리지만 실제적으로는 泌別清濁을 의미한다.

####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마음속으로 이해되지 않으니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天地와

하나가 되어 陰陽의 氣에 相合하니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足太陽은 밖으로 淸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膀胱에 이어져서 水道를 통하게 하고, 足少陽은 밖으로 渭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膽에 이어지고, 足陽明은 밖으로 海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胃에 이어지고, 足太陰은 밖으로 湖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脾에 이어지고, 足少陰은 밖으로 汝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腎에 이어지고, 足厥陰은 밖으로 澗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肝에 이어진다. 手太陽은 밖으로 淮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小腸에 이어져서 물을 걸러내고 手少陽은 밖으로 潔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三焦에 이어지고, 手陽明은 밖으로 江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大腸에 이어지고, 手太陰은 밖으로 河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肺에 이어지고, 手少陰은 밖으로 濟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心에 이어지고, 手心主는 밖으로 漳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心包에 이어진다.

## 2) 經水의 陰陽

### 【原文】

凡此五藏六府十二經水者 外1)有源泉而內有所稟하니 此皆內外相貫하여 如環無端하니 人經亦然이라 故로 天爲陽이요 地爲陰이니 腰以上은 爲天이요 腰以下는 爲地라 故로 海3)以北者는 爲陰이요 湖以北者는 爲陰中之陰이요 漳以南者는 爲陽이니 河以北至漳者는 爲陽中之陰이요 潔以南至江者는 爲陽中之太4)陽이라 此는 一隅5)(1)之陰陽也나 所以人6)與天地相參也라

### 【校勘】

- 1) 外有源泉: 『太素』와 『甲乙』에는 ‘皆外有源泉’으로 되어 있다.
- 2) 腰以下爲地: 『甲乙』에는 ‘下爲地’로 되어 있다.
- 3) 海以北者: 『太素』에는 ‘淸以北者’로 되어

있다.

- 4) 陽中之太陽: 『太素』와 『甲乙』에는 '陽中之陽'으로 되어 있다.
- 5) 一隅: 『太素』와 『甲乙』에는 '一州'로 되어 있다.
- 6) 所以人與天地相參也: 『甲乙』에는 '此人所以與天地相參也'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隅: 隅也, 구석우

【較註】

[16] 五藏六府十二經水者 外有源泉而內有所稟 此皆內外相貫 如環無端 人經亦然 故天爲陽地爲陰 腰以上爲天 腰以下爲地

楊은 “十二經水에 있어 가령 江水가 岷山에서 發源하고 河水가 崑崙에서 發源하는 것이 '外有源泉'이고, 바다로 流入하는 것이 곧 '內有所稟'이다. 물이 바다에 이르면 올라가서 天河가 되고 다시 發源지로부터 나와 바다로 流入하는 것이 곧 '內外相貫如環無端'이다. 사람의 經脈도 또한 그러하니 足三陰脈이 발가락으로부터 起始하는 것이 곧 '外有源泉'이고 위로 올라가 府에 絡하고 藏에 屬하는 것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에 비견되니 곧 '內有所稟'이다. 手三陰脈을 보면 가슴으로부터 손에 이르고 手三陽脈으로 변하여 손으로부터 起始하는 것이 곧 '外有源泉'이고, 위로 올라가 藏에 絡하고 府에 屬하는 것이 곧 '內有所稟'이다. 머리로 올라가 足三陽脈이 되고 머리로부터 발로 내려가서 다시 足三陰脈으로 변하는 것이 곧 '內外相貫如環無端'이다. 사람의 허리 이상은 天이 되고 陽이 되고 허리 이하는 地가 되고 陰이 된다.”<sup>62)</sup>라고 하였고,

62) ●楊: 十二經水에 如江出岷山하고 河出崑崙이 卽外有源也요 流入於海가 卽內有所稟也라 水至於海已면 上爲天河하야 復從源出하야 流入於海가 卽爲內外相貫如環無端也라 人經亦爾

馬·景岳은 “여기서는 經水와 經脈이 서로 相參하는 것으로 天地의 陰陽에 합치한 것이다. 무릇 經水는 河海는 밖으로 運行하고 源泉은 땅에서 나오고, 經脈에 있어 脈絡은 表部로 運行하고 臟腑는 안을 주관하므로 안팎으로 서로 관통하여 마치 고리의 끝이 없음과 같다. 그러나 經水와 經脈은 각각 陰陽의 나뉘어 있으니 예를 들면 天은 가볍고 맑아 위에 있으므로 '天爲陽'이고, 地는 무겁고 탁해 아래에 있으므로 '地爲陰'이니, 『六微旨大論』에 이르기를, 天樞의 위는 天氣가 주재하고 天樞의 아래는 地氣가 주재한다고 하였다. 사람의 몸이 天地에 응하므로 허리 이상은 天이 되어 陽에 속하며 허리 이하는 地가 되어 陰에 속하니, 經脈과 藏府가 經水에 응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sup>63)</sup>라고 하였고,

張은 “泉은 땅의 아래에 있으며 땅은 天의 가운데에 있고, 물이 天氣를 따라 위 아래로 흐르고 땅 밖을 돌아흘러서 땅 속을 貫通하

니 足三陰脈이 從足指起가 卽外有源也요 上行하야 絡府屬藏은 比之入海니 卽內有所稟也라 以爲手三陰脈이 從胸至手하고 變爲手三陽脈하야 從手而起가 卽外有源也요 上行하야 絡藏屬府가 卽內有所稟也라 上頭以爲足三陽脈이 從頭之下足하고 復變爲足三陰脈이 卽內外相貫如環無端也라 人腰以上은 爲天爲陽也요 自腰以下는 爲地爲陰也라

63) ○馬: 以人身藏府로 而合十二經水者라 蓋天位乎上爲陽이며 地位乎下爲陰 而人之腰以上象天하고 腰以下象地 故로 經水는 以東西南北으로 而分陰陽及陰陽中之陰陽하니 則人之藏府도 亦以東西南北 而合十二經水也니 所謂人與天地相參이 固如此라 ●景岳: 此는 以經水經脈相參 而合乎天地之陰陽也라 夫經水者는 河海行於外 而源泉出於地요 經脈者는 脈絡行於表 而藏府主於中 故로 內外相貫이 如環無端也라 然이나 經水經脈은 各有陰陽之分하니 如天은 以輕清在上 故로 天爲陽이요 地는 以重濁在下 故로 地爲陰이니 六微旨大論에 曰 天樞之上은 天氣主之하고 天樞之下는 地氣主之라하니라 人身이 應天地 故로 腰以上은 爲天屬陽이요 腰以下는 爲地屬陰이니 而經脈藏府之應於經水者도 亦然이라

로 '밖에 源泉이 있고 안에 稟賦받는 바가 있다(外有源泉 而內有所稟)'라고 하였으니 대개 땅은 在泉의 물을 稟賦받아 밖으로 十二經水의 源流가 되어, 內外로 서로 관통함이 고리의 끝없음과 같고 사람도 또한 이에 상응한다. 「水熱穴論」에 말하기를, 腎은 至陰이니 至陰은 水氣가 旺盛한 것이고 肺는 太陰이고 少陰은 冬脈이므로 根本은 腎에 있고 末端은 肺에 있으니 모두 水氣가 모인 것이다라고 하니 이 腎藏의 精水와 膀胱의 津水가 모두 肺가 주재하는 氣를 따라서 膚表로 運行하는 것이므로 허리 이상은 天이며 허리 이하는 땅이니 天地 상하에 모두 물이 있는 것이다.<sup>64)</sup>라고 하였다.

【考察】

'外有源泉而內有所稟'에 있어, 楊은 '外有源泉'을 經脈이 起始하는 것으로 보았고, 景岳·白話解·譯釋은 '外有源泉'을 絡脈이 表部로 運行하는 것으로 보았고, '內有所稟'은 楊과 景岳·白話解·譯釋 모두 經脈이 臟腑에 絡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張은 '內有所稟'을 腎藏의 精水와 膀胱의 津수로 보았고, '外有源泉'은 腎藏의 精水와 膀胱의 津水가 肺의 氣化를 받아서 膚表로 運行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연계의 十二經水는 發源하는 곳이 있고, 바다로 흘러가니, 이에 비추어 보면 '外有源泉'은 經脈이 起始하는 것이고, '內有所稟'은 經脈이 臟腑에 絡屬하는 것이다. 張의 註釋은 水升火降으로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源泉이 膀胱과

腎에 한정되어 十二經水와 十二經脈이 相應한다는 본편의 大前提와 合致하지 않는다. 張의 註釋은 옳지 못하다.

[17] 海以北者爲陰 湖以北者爲陰中之陰 漳以南者爲陽 河以北至漳者爲陽中之陰 灤以南至江者爲陽中之太陽

楊은 "經脈은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내려가서 經水와 함께 운행하므로 합함을 얻는다. 淸水 이북은 이미 陰이고, 湖水는 淸水의 북쪽에 있으므로 陰中之 陰이고, 漳水의 남쪽은 陽이고, 河水의 북쪽은 陰이므로 河水의 북쪽에서 漳水에 이르는 것은 陽中之 陰이고, 灤水는 陽의 땅에 위치하므로 陽中之 太陽이다."<sup>65)</sup>라고 하였고,

景岳은 "海水는 胃에 합하며 湖水는 脾에 합하고 脾胃는 中州에 거처하여 허리의 부분이니, 海水 이북이 陰이 되는 것은 胃府로서 말한 것이니 胃로부터 아래는 小腸과 膽과 膀胱이니 모두 府에 속하고 胃의 북쪽에 위치하므로 陰이 되고, 湖水 이북이 陰中之 陰이 되는 것은 脾藏으로 말한 것이니 脾로부터 아래는 肝과 腎이니 모두 藏에 속하고 脾의 북쪽에 위치하므로 陰中之 陰이 된다. 허리 이상은 예를 들면, 漳水는 心主에 합하고 心主의 위는 다만 心과 肺뿐이므로 漳水 이남은 陽이 되고, 河水는 肺에 합하고 肺의 아래는 다만 心과 心主뿐이므로 河水 이북에서 漳水에 이르기까지는 陽中之 陰이 된다. 무릇 이 모두는 위를 南으로 하고 아래를 北으로 하여 陰陽을 말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다시 그 陽이 있는 것은 藏府의 밖은 三焦가 되고 三焦의 밖은 皮毛가 되고, 「本藏篇」에 이르기를, 肺는 大腸에 합하

64) ●張: 夫泉在地之下하며 地居天之中하고 水隨天氣上下하여 環轉於地之外 而以通貫於地中 故로 曰外有源泉 而內有所稟이니 蓋地稟在泉之水 而外爲十二經水之源流하여 內外相貫이 如環無端 而人亦應之라 水熱穴論에 曰腎者는 至陰也니 至陰者는 盛水也요 肺者는 太陰也요 少陰者는 冬脈也 故로 其本在腎하고 其末在肺하니 皆積水也라하니 是腎藏之精水와 膀胱之津水가 皆隨肺主之氣 而運行於膚表 故로 腰以上爲天이며 腰以下爲地니 天地上下之皆有水也라

65) ●楊: 經脈은 昇天降地하여 與經水同行 故로 得合也라 淸水以北은 已是其陰이요 湖在淸北 故로 爲陰中之陰也라 漳南爲陽이요 河北爲陰 故로 河北至漳은 爲陽中陰也요 灤居陽地 故로 爲陽中太陽이라

고 大腸은 皮膚가 그 응합이다라고 하니, 지금 三焦가 溧水에 합하고 大腸이 江水에 합하므로 溧水 이남에서 江水에 이르기까지는 陽中の 太陽이 된다고 하였다.”<sup>66)</sup>라고 하였고,

張은 “海水 이북은 胃를 中央으로 삼아 중앙 胃의 아래를 陰이 된다고 한 것이니 肝腎이 위치하는 곳이고, 湖水 이북은 脾土가 위치하는 부분이므로 陰中の 陰이니 脾胃는 陰中の 至陰이기 때문이고, 漳水 이남이 陽이 되는 것은 心主包絡의 위는 心肺가 위치하는 곳이기 때문이니 대개 위는 하늘, 陽, 남쪽이 되고 아래는 땅, 陰, 북쪽이 되기 때문이다. 河水 이북에서 漳水까지라는 것은 上焦를 따라 뒤로 등으로 운행하는 것을 이름이고, 溧水 이남에서 江水까지라는 것은 中焦를 따라 앞으로 배를 운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이것은 사람의 얼굴 쪽이 남쪽이 되고 등 쪽이 북쪽이 되기 때문이다.”<sup>67)</sup>라고 하였고,

丹波는 “‘海以北者’로부터 ‘河以北至漳者’까지의 위는 南, 아래는 北으로 陰陽을 말한 것

이니 그 뜻이 분명하다. 다만 ‘溧以南至江者’에 있어서는 三焦, 大腸으로 陽中の 太陽으로 삼으니 그 뜻이 자세하지 않다. 張景岳의 註釋은 牽強附會인 것 같다. 張志聰이 말하기를 河水 이북에서 漳水까지라는 것은 上焦를 따라 뒤로 등으로 운행하는 것을 이름이고, 溧水 이남에서 江水까지라는 것은 中焦를 따라 앞으로 배를 운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이것은 사람의 얼굴 쪽이 남쪽이 되고 등 쪽이 북쪽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 설도 근거하기 어렵다.”<sup>68)</sup>고 하였고,

白話解는 “옛날 방법의 하늘은 남쪽이고 땅은 북쪽이라는 것에 근거한 陰陽의 位置는 위로부터 아래로 한 때문이니, 海水 이북이 陰이라고 하는 것은 胃經이 海水에 배합하니 胃經 이하의 膽과 膀胱 두 經脈이 모두 머리로부터 발에 이르니 허리 이하로 陰에 속하는 下肢에 분포하는 것을 말함이다. 湖水 이북이 陰中の 陰이라고 하는 것은 脾經이 湖水에 배합하니 脾經 이하의 肝腎 두 經脈이 모두 陰에 속하는 下肢와 陰에 속하는 內側에 분포하는 말함이다. 漳水 이남이 陽이라고 하는 것은 心包絡經이 漳水에 배합하니 心包絡經 이상의 肺經은 허리 이상에 있으니 陽에 속하는 上肢에 위치하는 것을 말함이다. 河水 이북에서 漳水에 이르는 부위는 陽中の 陰이라고 한 것은 肺經이 河水에 배합하니 肺經 이하에서 漳水와 서로 配合하는 心包絡經에 이르기까지의 部位는 陽에 속하는 上肢와 陰에 속하는 內側에 분포하는 것을 말함이다. 溧水 이남에서 江水에 이르는 부위는 陽中の 太陽이라는 것은

66) ●景岳: 如海合於胃하며 湖合於脾하고 脾胃는 居於中州하니 腰之分也니 海以北者爲陰은 就 胃府言이니 自胃而下 則小腸膽與膀胱이니 皆 屬府하고 居胃之北而爲陰也요 湖以北者爲陰 中之陰은 就脾藏言이니 自脾而下 則肝腎이니 皆 屬藏하고 居脾之北 而爲陰中之陰也라 腰以上者는 如漳合於心主하고 心主之上은 惟心與 肺 故로 漳以南者는 爲陽也요 河合於肺하고 肺之下는 亦惟心與心主 故로 河以北至漳者는 爲陽中之陰也라 凡此皆以上南下北으로 言陰 陽耳라 然이나 更有其陽者 則藏府之外爲三焦 而 三焦之外爲皮毛요 本藏篇에 曰肺合大腸하고 大腸者皮其應이라하니 今三焦合於溧水하고 大腸合於江水 故로 曰溧以南至江者는 爲 陽中之太陽也라

67) ●張: 海以北者는 謂胃居中央하야 以中胃之下 爲陰이니 肝腎之所居也요 湖以北者는 乃脾土 所居之分 故로 爲陰中之陰이니 脾胃는 陰中 之至陰也라 漳以南者爲陽은 乃心主包絡之上 是 心肺之所居也니 蓋以上爲天爲陽爲南이요 下爲地爲陰爲北也라 河以北至漳者는 謂從上 焦而後行於背也요 溧以南至江者는 謂從中焦 而前行於腹也니 此는 以人之面南而背北也라

68) ●丹波: 自海以北者로 至河以北至漳者는 則以 上南下北으로 言陰陽이니 其意自明矣라 惟至 溧以南至江者는 則以三焦大腸으로 爲陽中の 太陽하니 其意未詳이라 張景岳注는 似牽強이 라 張志聰이 云河以北至漳者는 謂從上焦而後 行于背也요 溧以南至江者는 謂從中焦而前行 于腹也니 此는 以人之面南而背北也라하니 此 說亦難據라

表 6

經水	內屬	經水の陰陽			
		馬	景岳	張	白話解
清水	膀胱	陰	陰	·	陰
渭水	膽	陰	陰	·	陰
海水	胃	陰	陰	陰	陰
湖水	脾	陰中之陰	陰中之陰	陰中之陰	陰中之陰
汝水	腎	陰中之陰	陰中之陰	陰	陰中之陰
灑水	肝	陰中之陰	陰中之陰	陰	陰中之陰
淮水	小腸	陽中之太陽	陰	·	陽中之太陽
漯水	三焦	陽中之太陽	陽中之太陽	陽中之太陽	陽中之太陽
江水	大腸	陽中之太陽	陽中之太陽	陽中之太陽	陽中之太陽
河水	肺	陽中之陰	陽中之陰	陽	陽中之陰
濟水	心	陽中之陰	陽中之陰	陽	陽中之陰
漳水	心包	陽	陽	陽	陽中之陰

三焦經이 漯水에 배합하니 三焦經 이상에서 江水와 서로 配合하는 大腸經에 이르는 부위는 모두 陽에 속하는 上肢와 陽에 속하는 外側に 분포하는 것을 말함이다.”<sup>69)</sup>라고 하였다.

【考察】

‘海以北者爲陰 …… 漳以南者爲陽’에 있어, 景岳·張·丹波 모두 남쪽은 陽이고 북쪽은 陰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藏府의 위치를 가지고 註釋하였고, 白話解는 經脈이 上肢와 外側に 분포한 것은 陽, 下肢와 內側に 분포한 것은 陰으로 하여 經脈의 분포로 註釋하였고 아

래도 이와 같다.

‘河以北至漳者爲陽中之陰 漯以南至江者爲陽中之太陽’에 있어, 景岳은 ‘河以北至漳者爲陽中之陰’에 있어서는 위의 설과 동일하고 ‘漯以南至江者爲陽中之太陽’에 있어서는 藏府의 밖은 三焦가 되고 三焦의 밖은 皮毛가 되고, 肺는 大腸에 합하고 大腸은 皮膚가 그 옹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는 인체의 가장 바깥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陽中之太陽이 된다고 본 것이고, 張은 河水 이북에서 漳水까지라는 것은 上焦를 따라 뒤로 등으로 운행하는 것을 이르고, 漯水 이남에서 江水까지라는 것은 中焦를 따라 앞으로 배를 운행하는 것을 이르기니 이것은 사람의 얼굴 쪽이 남쪽이 되고 등 쪽이 북쪽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各家의 註釋에 따른 十二經水의 陰陽을 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表 6>

戰國時代 지도를 참조해 보면, 그 당시 중심 도시였던 洛陽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發源이 東쪽이나 東北쪽에 있는 강은 陽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은 陰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8] 此一隅之陰陽也 所以人與天地相參也  
楊·景岳·張은 “이 天地人이 서로 합하는 理致에 있어 天地는 지금처럼 넓으니 여기에서

69) ●白話解: 根據古法天南地北的陰陽位置是 所以自上而下이니 在海水以北的稱爲陰은 胃經配合海水하니 從胃經以下的膽和膀胱二經은 都自頭至足하니 在腰以下分布于屬陰的下肢라 在湖水以北的稱爲陰中之陰은 脾經配合湖水하니 在脾經以下的肝腎二經은 都分布于屬陰的下肢和屬陰的內側이라 在漳水以南的稱爲陽은 心包絡經配合漳水하니 心包絡經以上的肺經은 在腰以上이니 位于屬陽的上肢라 在河水以北到漳水的部位稱爲陽中之陰은 肺經配合河水하니 在肺經以下到與漳水相配合的心包絡經的部位는 分布在屬陽的上肢和屬陰的內側이라 在漯水以南至江水的部位稱爲陽中之太陽은 三焦經配合漯水하니 在三焦經以上到與江水相配合的大腸經的部位는 都是位于屬陽的上肢和屬陰的外側이라

합한다고 말할 것은 특히 中國의 十二經水로 예를 들었을 뿐이므로 '이것은 한 구역의 陰陽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나 사람과 자연계는相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70)</sup>라고 하였다.

#### 【直譯】

이 五藏六府와 十二經水는 밖으로는 源泉이 있고 안으로는 흘러들어가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모두 안팎으로 서로 관통하여 고리의 끝이 없음과 같으니, 사람의 經脈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天은 陽이, 地는 陰이 되니 허리 이상은 天에, 허리 이하는 地에 相應한다. 그러므로 海水 이북은 陰이, 湖水 이북은 陰中の 陰이, 漳水 이남은 陽이, 河水 이북에서 漳水까지는 陽中の 陰이, 漯水 이남에서 江水까지는 陽中の 太陽이 된다. 이것은 한 구역의 陰陽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나 사람과 자연계는 相應하는 것이다.

### 3. 鍼灸의 度數

#### 【原文】

黃帝 曰夫經水之應經脈也 其遠近 1)淺深과 水血之多少가 各不同하니 合而以2)刺之는 奈何요

岐伯이 答曰足陽明은 五藏六府之海也니 其脈大3)血多氣盛하고 熱壯4)(1)이라 刺此者는 不深이면 弗散5)이요 不留면 不寫也니 足陽明6)은 刺深六分하고 留十呼요 足太陽7)은 深五分하고 留七呼요 足少陽8)은 深四分하고 留五呼9)요 足太陰10)은 深三分하고 留四呼요 足少陰11)은 深二分하고 留三呼요 足厥陰12)은 深一分하고 留二呼요 手之陰陽은 其受氣之道近하야 其氣之來14)疾(2)하니 其刺深者15)도 皆無過二分이요 其16)留도 皆無過一呼라 其少長大小肥瘦를 以心揀17)(3)之니 命曰法(4)天

之常(5)이라 灸之亦然하니 灸而過此者는 得悉火(6)니 則骨枯(7)脈澀18)이요 刺而過此者는 則脫氣(8)니이다

#### 【校勘】

- 1) 其遠近淺深: 『甲乙』에는 '其遠近之淺深'으로 되어 있다.
- 2) 合而以刺之: 『甲乙』에는 '合而刺之'로 되어 있다.
- 3) 其脈大: 『甲乙』에는 '其脈大而'로 되어 있다.
- 4) 熱壯: 『大成』 권1 『手足陰陽經脈刺論』에는 '壯熱'로 되어 있다.
- 5) 弗散: 『甲乙』에는 '弗散'으로 되어 있다.
- 6) 足陽明: 『甲乙』에는 '足陽明多血氣'로 되어 있다.
- 7) 足太陽: 『甲乙』에는 '足太陽多血氣'로 되어 있다.
- 8) 足少陽: 『甲乙』에는 '足少陽少血氣'로 되어 있다.
- 9) 足太陽 …… 足少陽 ……: 『甲乙』에는 足少陽, 足太陽의 차례로 되어 있다.
- 10) 足太陰: 『甲乙』에는 '足太陰多血少氣'로 되어 있고, 『大成』 권1 『手足陰陽經脈刺論』(以下同)에는 '足少陰'으로 되어 있다.
- 11) 足少陰: 『甲乙』에는 '足少陰少血多氣'로 되어 있고, 『大成』에는 '足太陰'으로 되어 있다.
- 12) 足厥陰: 『甲乙』에는 '足厥陰多血少氣'로 되어 있다.
- 13) 留二呼: 『甲乙』에는 '留一呼'로 되어 있다.
- 14) 其氣之來疾: 『甲乙』에는 '其氣之來也疾'로 되어 있다.
- 15) 其刺深者: 『太素』에는 '其深'으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其刺深'으로 되어 있다.
- 16) 其留: 『甲乙』에는 '留'로 되어 있다.

- 17) 以心撥之: 『甲乙』에는 '以心料之'로 되어 있다.  
 18) 脈滯: 『太素』에는 '脈續'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脈澁'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壯: 盛也, 성할장  
 (2) 疾: 急也, 빠를질  
 (3) 撥: 料也, 헤아릴로  
 (4) 法: 效法, 본받을법  
 (5) 常: 恒也, 항상상, 庸也, 떳떳상  
 (6) 惡火(악화): 인체에 危害를 주는 火邪<sup>71)</sup>  
 (7) 骨枯(골고): 骨節이 말라 위축되는것<sup>72)</sup>  
 (8) 脫氣(탈기): 耗氣, 元氣가 損傷되는 것.

【較註】

[19] 其脈大血多氣盛熱壯

楊은 “胃는 水穀을 받아 血氣를 化成하고 足陽明脈이 되어 五藏六府를 資潤하고 五藏六府가 血氣를 稟成하니 四海가 끊임없이 만물을 滋養하고 윤택하게 함에 비견되므로 海라고 하였다. 足陽明脈이 모두 네 가지 뜻이 있으므로 海라고 불리우니 그 脈이 큰 것이 하나이고 그 血이 또 많은 것이 둘이고 그 穀氣가 盛한 것이 셋이고 陽氣가 熱한 것이 넷이니 이 네 가지 뜻이 있으므로 바다에 비유되는 것이다. 刺鍼하는 방법은 보통 사람의 足三陽脈을 刺鍼하는 것을 말함이니, 足陽明脈은 모름지기 刺鍼 깊이가 6分정도는 되어야 깊은 것으로 여겨진

다. 그 脈이 皮下에 깊이 있고 血氣가 또 盛하므로 깊이가 6分정도는 되어야 그 氣를 홀트릴 수 있고 血氣가 이미 盛하니 오래 留鍼해야 곧장 邪氣를 寫할 수 있다.”<sup>73)</sup>라고 하였고,

景岳은 “鍼을 쓰는 방법은 여러 經脈이 다르니 刺針함에 깊이가 있으니 寸分을 살펴야 하고, 留鍼에는 遲速이 있으니 呼吸으로 綱紀를 삼아 각각 經脈의 깊이와 遠近을 따라 적절하게 해야 한다. 十二經 중에서 오직 足陽明經의 脈이 가장 커서 多氣多血하여 그 邪氣가 盛한 경우는 熱이 반드시 왕성하니 足陽明經을 刺鍼하는 경우는 깊이 刺鍼하지 않으면 邪氣를 홀트리지 못하고 오래 留鍼하지 않으면 邪氣를 寫할 수 없다.”<sup>74)</sup>고 하였다.

【考察】

‘熱壯’에 있어, 景岳은 邪氣가 盛한 경우는 熱이 반드시 왕성하다고 하여 足陽明經의 병리적 특징으로 보았고, 楊은 陽氣가 熱한 것이라고 하여 생리적 특징으로 보았으나, 前後 文脈으로 보았을 때 생리적 특징으로 보는 것이 옳다.

[20] 足陽明刺深六分 留十呼 足太陽深五分 留七呼 足少陽深四分 留五呼 足太陰深三分 留四呼 足少陰深二分 留三呼 足厥陰深一分 留二呼

70) ○楊: 陰陽之理는 無形하여 大之無外며 小之無內나 但人生一州之地하고 形必象之 故로以一州陰陽에 合人者也라 ●景岳: 此天地人相合之道에 天地至廣 而效所言合者는 特舉中國之水耳 故로 曰此一隅之陰陽也나 所以人與天地相參也라 ○張: 蓋人生於天地之間 六合之內하여 以此身一隅之陰陽으로 應天地之上下四旁하니 所以與天地參也라  
 71) ○楊: 非善火요 乃惡火也라 ●白話解: 危害性的惡火  
 72) ●白話解: 骨節枯萎

73) ●楊: 胃受水穀하여 化成血氣하고 爲足陽明脈이라 資潤五藏六府하여 五藏六府가 稟成血氣하니 譬之四海滋澤無窮 故로 名爲海也라 足陽明脈이 具有四義 故로 得名海니 其脈粗大가 一也요 其血又多가 二也요 其穀氣盛이 三也요 陽氣熱이 四也니 有此四義 故로 得比於海也라 刺此道는 刺中度人足三陽脈이니 足陽明脈은 須深六分이러야 以爲深也라 其脈在皮下深하고 血氣又盛 故로 深六分이러야 方得散其氣也요 血氣既盛하니 留之러야 方得頓而寫也라  
 74) ●景岳: 用鍼之法은 諸經不同 故로 入有淺深하니 分寸可察하고 留有遲速하니 呼吸可紀하여 各隨經脉之淺深遠近而施其宜也라 十二經中에 惟足陽明之脉이 最大而多氣多血하고 其邪盛者는 熱必壯이라 凡刺此者는 不深入則邪弗能散이요 不久留則邪不能寫라

楊은 “여기 明堂에 나온 刺鍼하는 分數는 각각 한 예를 든 것이니 만약 사람에게 따르고 病에 따르면 그 예가 매우 많을 것이니 하나의 대략적인 것으로 정할 수가 없다. 지금 足太陽脈은 皮肉의 가운데 있어 깊이가 4分여이므로 5分을 刺鍼하는 것을 예로 삼은 것이고, 만약 脈의 運行에 있어서는 다시 深淺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다. 7呼를 留鍼한다는 것은 太陽脈氣의 強弱에 근거하여 한 예를 삼은 것이고 만약 病의 盛衰에 있어서는 다시 多少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調節해야 하고 하나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다.”<sup>75)</sup>라고 하였고,

馬·景岳은 “이것은 足六經의 刺鍼 방도이다. 숨을 내쉬는 것을 ‘呼’라 하고 숨을 들이쉬는 것을 ‘吸’이라 하나 10呼나 7呼 등이라고 말한 것은 ‘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대개 1呼는 즉 한번 숨쉬는 것이다. 다만 刺鍼에는 補瀉의 다름이 있으니 呼吸에 先後의 나눔이 있다. 그러므로 瀉法을 쓰는 경우는 반드시 病者의 吸을 살피 刺鍼하고 재차 吸할 때에 鍼을 돌리며 呼를 살피 拔針한다. 補法을 쓰는 경우는 반드시 그 呼에 맞추어 刺鍼하고 재차 呼할 때에 鍼을 돌리며 吸을 살피 拔針한다. 그러므로 『鍼賦』에 말하기를, 補하는 경우는 呼를 먼저하고 吸을 뒤에 하며, 瀉하는 경우는 吸을 먼저하고 呼를 뒤에 한다고 하니 바로 이 뜻이다. 후세에 환자의 咳嗽로써 呼를 대신하고 收氣로써 吸을 대신하니 氣에 出

入이 있는 것이 또한 呼吸과 서로 같을 따름이다.”<sup>76)</sup>라고 하였고,

張은 “여기서는 灸刺하는 방법에 있어 手足의 陰陽과 血氣의 多少로 經水의 淺深에 합하여 天의 常數에 상응하는 것을 논하였다. 무릇 數는 河圖에 보이는데 1에서 시작하여 10에서 마치니 2는 陰의 시작이고 10은 陰의 마침이다. 海水는 至陰이므로 陽明으로부터 厥陰에 이르고, 厥陰은 兩陰이 서로 다하여 陰이 極하여 陽이 생긴다. 天一은 水를 생하고 地六은 완성시키니 6分으로부터 1分에 이르는 것이 法度의 보편성이다.”<sup>77)</sup>라고 하였다.

#### 【考察】

註釋家들이 여러 설을 이야기하였지만, 楊

76) ○馬: 此는 言灸刺에 有多少之數也라 足陽明胃經은 多氣多血하고 其脈大하며 其熱壯하니 刺之者는 必深六分이요 留十呼라 凡瀉者는 必先吸入鍼하고 又呼轉鍼하고 候呼出鍼이요 凡補者는 必先呼入鍼하고 又呼轉鍼하고 又吸出鍼이라 今日深六分은 則入之至深者也요 曰留十呼는 是言瀉法에 有十呼之久니 蓋入鍼必吸하고 轉鍼必吸하고 至十呼出鍼이라 但補法은 不言吸數나 以理論之면 其吸與呼同數也라 後世에 凡針灸聚英等書에 言吸若干者는 皆言補法이니 先呼後吸하고 呼若干者는 皆言瀉法이니 先吸後呼라 故로 鍼賦에 有云補者는 先呼後吸하고 瀉者는 先吸後呼라하니 正此義也라 ●景岳: 此는 足六經之刺度也라 出氣曰呼요 入氣曰吸이나 曰十呼七呼之類 則吸在其中矣니 蓋一呼는 卽一息也라 但刺有補瀉之異하니 呼吸에 有先後之分 故로 凡用瀉者는 必候病者之吸而入鍼하며 再吸轉鍼하며 候呼出鍼하고 凡用補者는 必因其呼而入鍼하며 再呼轉鍼하며 候吸出鍼이라 故로 鍼賦에 曰補者는 先呼後吸하고 瀉者는 先吸後呼라하니 正此義也라 後世에 令病人咳嗽以代呼하고 收氣以代吸하니 氣有出入도 亦與呼吸相同耳라

77) ●張: 此는 論灸刺之法에 以手足之陰陽과 血氣之多少로 合經水之淺深하야 以應天之常數라 夫數出河圖에 始於一而終於十하니 二乃陰之始요 十乃陰之終이라 海水者는 至陰也 故로 從陽明以至於厥陰하고 厥陰者는 兩陰交盡하야 陰極而陽生也라 天一生水하고 地六成之하니 從六分而至一分者는 法度之常也라

75) ●楊: 此及明堂所刺分數는 各舉一例니 若隨人隨病이면 其例甚多니 不可一概也라 今日太陽脈은 在皮肉中하야 有深四分有餘 故로 以刺入五分爲例요 若脈行에 更有深淺하니 可以意捫循取之爲當이라 餘皆放此라 留七呼者는 此據太陽脈氣強弱하야 以爲一例요 若病盛衰에 更多少니 可隨時調之요 不可以爲定也라 餘皆放此也라

의 註釋에서 이야기한 여기서 말한 것은 한가지 예일 뿐이니 상황에 따라 調節해야 하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이 중요하다.

[21] 手之陰陽 其受氣之道近 其氣之來疾 其刺深者 皆無過二分 其留 皆無過一呼

楊은 “手の 六陰은 손으로부터 가슴에 이르러 藏에 屬하고 府에 絡하니 각각 길이가 3尺 5寸이고 手の 六陽은 손으로부터 머리에 이르러 府에 屬하고 藏에 絡하니 각각 길이가 5尺이다. 足の 六陰은 발로부터 가슴에 이르러 藏에 屬하고 府에 絡하니 각각 길이가 6尺 5寸이고 足の 六陽은 발로부터 머리에 이르러 府에 屬하고 藏에 絡하니 각각 길이가 8尺이다. 이 手足十二經脈은 당연히 항상 血氣가 上下로 고리처럼 흐르나 足經은 이미 기니 곧 血氣가 고리처럼 흐름에 그 길이 멀고 다시 이것이 陰氣이므로 그 運行이 느리며, 手經은 이미 짧으니 곧 血氣가 고리처럼 흐름에 그 길이 가깝고 다시 이것이 陽氣이므로 그 運行이 빠르다. 그 길이 가깝고 脈이 얇으니 刺鍼의 깊이가 2分을 넘지 않고 그 氣가 빠르므로 留鍼이 1呼를 넘지 않는다.”<sup>78)</sup>라고 하였고,

馬·譯釋은 “무릇 手三陰과 手三陽의 여섯 經脈은 足經과 차이가 없으나 鍼法은 반드시 다르니 바로 手の 여섯 經脈이 위에 있어 肺에 가까우므로 肺는 胃의 穀氣를 받아 諸經을 運行하고 諸經은 肺의 大氣를 받아 각각의 經脈을 운

78) ●楊: 手之六陰은 從手至胸하야 屬藏絡府하니 各長三尺五寸이요 手之六陽은 從手至頭하야 屬絡絡藏하니 各長五尺이라 足之六陰은 從足至胸하야 屬藏絡府하니 各長六尺五寸이요 足之六陽은 從足至頭하야 屬絡絡藏하니 各長八尺이라 此手足十二之脈은 當經血氣上下環流也나 然이나 足經既長하니 卽血氣環流에 其道遠也며 復是陰氣 故로 其行遲也요 手經既短하니 卽血氣環流에 其道近也며 復是陽氣 故로 其行疾也라 以其道近脈淺하니 刺深無過二分也요 以其氣疾 故로 留之不過一呼也라

행하니 그 氣를 받는 길이 가까워서 그 氣가 오는 것이 매우 빠르기 때문이니 手の 여섯 經脈을 刺鍼하는 것은 모두 2分을 넘지 않고 留鍼하는 것은 모두 1呼를 넘지 않게 되는 것이다.”<sup>79)</sup>라고 하였고,

景岳은 “手三陰과 手三陽의 여섯 經脈은 모두 위에 있어 肌肉이 얇고 谿谷이 얕으므로 刺鍼이 깊지 않아야 하고, 經脈이 짧아 氣가 脫泄되기 쉬우므로 留鍼도 오래지 않아야 한다.”<sup>80)</sup>라고 하였고,

張은 “허리 이상은 天이므로 手三陰과 手三陽經脈이 氣를 받는 길이 가깝고 그 氣가 오는 것이 빠르므로 마땅히 淺刺하고 빨리 出鍼한다.”<sup>81)</sup>라고 하였고,

白話解는 “手三陰經과 手三陽經의 分布에 있어 모두 上半身に 있으니 血氣를 실어서 퍼트리는 心肺 두 臟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또한 經脈이 循行하는 通路에 있어 肌肉이 얇고 穴位가 알기 때문에 脈氣의 運行이 또 비교적 신속하니 刺鍼하는 깊이는 일반적으로 모두 2分을 넘지 않고 留針하는 시간도 또 1呼를 넘지 않는 것이다.”<sup>82)</sup>라고 하였다.

79) ●馬: 凡手之陰陽六經은 與足經不殊 而鍼法必異하니 正以手之六經이 在上近於肺 故로 肺受胃之穀氣而行諸經하고 諸經受肺之大氣而行各經하니 其受氣之道近 故로 其氣之來也甚疾하니 所以刺之者는 皆無過二分이요 其留之者도 皆無過一呼也라 ○譯釋: 手三陰三陽經脈은 均循行于人體上半身하니 接受心肺氣血的距離較近하야 氣行迅速하니 針刺深度一般不超過二分하고 留針時間一般不超過一次呼吸이라

80) ●景岳: 手之六經은 皆在於上하야 肌肉薄而谿谷淺 故로 刺不宜深이요 經脈短而氣易泄 故로 留不宜久라

81) ●張: 腰以上은 爲天 故로 手之陰陽은 受氣之道近하고 其氣之來疾 故로 宜淺刺而疾出也라

82) ●白話解: 至于手三陰經和手三陽經의 分布에 都是在上半身이니 與輸播血氣의 心肺兩臟距離較近 而且因經脈循行所在的通路上肉薄하고 穴位淺하야 脈氣의 運行이 也比較快速하니 所以針刺의 深度는 一般都不超過二分하고 留針의 時間도 也不超過一呼라

&lt;表 7&gt; 經脈에 따른 內屬과 外合, 刺鍼깊이와 留鍼시간

經 脈	內 屬	外 合	刺鍼깊이	留鍼시간
足陽明	胃	海水	6分	10회 呼吸
足太陽	膀胱	清水	5分	7회 呼吸
足少陽	膽	渭水	4分	5회 呼吸
足太陰	脾	湖水	3分	4회 呼吸
足少陰	腎	汝水	2分	3회 呼吸
足厥陰	肝	灑水	1分	2회 呼吸
手太陽	小腸	淮水	2分	1회 呼吸
手少陽	三焦	漯水		
手陽明	大腸	江水		
手太陰	肺	河水		
手少陰	心	濟水		
手心主	心包	漳水		

## 【考察】

'其受氣之道近'에 있어, 楊은 手經脈의 길이 가 足經脈보다 짧은 것이라고 보았고, 馬·譯釋은 手經脈이 위에 있어 肺에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張은 허리 이상은 天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白話解는 心肺에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其氣之來疾'에 있어, 楊은 手經脈은 陽氣니 陽氣인 手經脈은 氣의 運行이 빠르다고 하였고, 白話解는 肌肉이 얇고 穴位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諸家의 설을 종합하여, 手經脈의 길이가 짧고 또 肺에 가까이 있어 經脈이 氣를 받는 길이 짧으니 시간이 적게 걸리고 이것이 곧 빠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2장과 제3장에 나온 經脈에 따른 內屬과 外合, 刺鍼깊이와 留鍼시간을 표로 만들면 <表 7>과 같다.

[22] 其少長大小肥瘦 以心揲之 命曰法天之常

楊·馬·景岳·張은 "刺法の 대략적인 것은 비록 위에서 말한 바와 같으나 그러나 사람마다 같지 않음이 있으니, 正氣가 부족한 경우는 盛하게 하고 邪氣가 盛한 경우는 衰하게 하고, 병의 부위가 큰 것은 넓게 하고 병의 부위가

작은 것은 좁게 하고, 살찐 사람은 깊게 하고 마른 사람은 얇게 하여 하나의 예로 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天道가 다함이 없고 造化를 헤아릴 수 없음을 만약 醫者가 본받는다면 신묘한 쓰임이 한정이 없을 것이니 이를 이름하여 '天의 常道를 본받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梅孤高氏가 말하기를, '留鍼에 몇 呼吸을 머무는지에 대하여 이러한 말이 있으나 그러나 病에는 淺深이 있으니 病이 가벼운 경우는 『內經』에서 말한 것처럼 하면 되고, 病이 심한 경우는 邪氣가 盛하여 邪氣가 鍼을 吸入하여 轉鍼도 오히려 어려운데 하물며 억지로 出鍼하는데 있어서야! 반드시 그 正氣가 오는 것을 살펴서 서서히 하여 虛하게 한 후에 出鍼하면 病氣가 사라질 것이니 참으로 『內經』에 말한 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라고 하니 이것이 곧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sup>83)</sup>라고 하였다.

83) ○楊: 揲는 力條反이니 取也라 人之生也에 五時不同하니 初生은 爲嬰兒요 能笑以上은 爲孩요 六歲以上은 爲小요 十八歲以上은 爲少요 二十以上은 爲壯이요 五十以上은 爲老라 今量三十以下는 爲少요 三十以上은 爲長이라 黃帝之時에 七尺五寸以上은 爲大요 不滿七尺五寸은 爲小나 今時人之大小는 可以意取之라

[23] 灸之亦然 灸而過此者 得惡火 則骨枯脈瀉 刺而過此者 則脫氣

楊·馬·景岳·張·白話解·譯釋은 “刺鍼에는 깊이와 시간의 度數가 있고 灸法에는 壯數와 크기의 度數가 있으며, 刺鍼에는 補瀉가 있고 灸法도 또한 補瀉가 있으니 무릇 火로 補하는 경우는 그 火를 불지 말고 火로 瀉하는 경우는 그 火를 빨리 타게 분다. 血이 實하고 氣가 壅滯되고 病이 깊고 살집이 두터운 경우는 마땅히 瀉하고 陽이 衰하고 氣가 怯弱하고 元氣가 虛하고 몸이 虛弱한 경우는 마땅히 補하여야 하고, 등, 배, 장판지, 넓적다리 氣를 받는 길이 멀고 病勢가 완만한 경우는 마땅히 크고 溫하게 하고, 頭面, 上肢와 쇠약하고 어린 아이인 경우는 마땅히 작고 적게 하여야 하니 이것이 大法이다. 만약 이를 알지 못하고 灸法에 있어 그 度數를 지나치면 다만 無益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우니 이것이 곧 ‘惡火’이다. 그러므로 灸法이 적절하지 못하면 뼈가 마르고 脈이 거칠어지고, 刺鍼이 적절하지 못하면 元氣가 脫泄되니 모두 사람에게 재앙이 된다.”<sup>84)</sup>라고 하였다.

天者는 理也니 少長大小肥瘦之變은 變而不恆하니 以合天爲妙라 此天之道也에 賢人은 以意取之호대 妙合其理 故로 曰法天之常也라 ○馬: 凡人之少長大小肥瘦는 皆當以心料之니 命曰 法天之常道也라 ●景岳: 刺法大槩는 雖如上文所云이나 然이나 人有不同하니 如少者는 盛하고 長者는 衰하고 大者는 廣하고 小者는 狹하고 肥者는 深하고 瘦者는 淺하야 有不可以一例論者 故로 當以心揀之라 蓋以天道無窮造化莫測을 醫當效之 則妙用無方이니 命曰法天之常也라 故로 梅孤高氏가 曰鍼之留에 幾呼는 雖有是言이나 然이나 病有淺深하니 病淺者는 如經言이던 可也요 病甚則邪盛하야 邪氣吸鍼하니 轉鍼尙難이어늘 況強出乎야 必候其正氣之來하야 徐而虛然後에 出鍼이던 病氣去리니 固不可以經言爲執也라 하니 是卽心揀之法이라 ○張: 終始篇에 曰刺肥人者는 以秋冬之齊하고 刺瘦人者는 以春夏之齊라 하니 是以少長大小肥瘦를 以心揀之하야 量其淺深疾徐니 所以法天時之常也라

84) ○楊: 灸法도 亦須量人少長大小肥瘦니 氣之盛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經水가 經脈에 相應하는데에 있어서, 그 經脈의 길이와, 깊이와 水血의 多少가 각각 다르니 어떻게 알맞게 刺鍼합니까?

歧伯이 대답하기를, 足陽明은 五藏六府의 海이니 그 脈이 크고 血이 많고 氣가 旺盛하고 熱이 많다. 깊이 刺鍼하지 않으면 흠어지지 않고 오래 留鍼하지 않으면 瀉할 수 없으니, 足陽明의 刺鍼깊이는 6分, 留鍼은 10회 呼吸으로 한다. 足太陽은 刺鍼깊이는 5分, 留鍼은 7회 呼吸, 足少陽은 刺鍼깊이는 4分, 留鍼은 5회 呼吸, 足太陰은 刺鍼깊이는 3分, 留鍼은 4회 呼吸, 足少陰은 刺鍼깊이는 2分, 留鍼은 3회 呼吸, 足厥陰은 刺鍼깊이는 1分, 留鍼은 2회 呼吸으로 한다. 手陰陽經脈은 그 氣를 받는 길이 짧아서 그 氣도 빨리 오니 그 刺鍼의 深

衰와 穴之分寸과 四時寒溫과 壯數多少를 不可卒中하야 失於常理라 故로 壯數不足이면 厥疾不瘳하고 若過其限이면 火毒入身하야 諸骨枯槁하고 經脈潰膿하니 名爲惡火之病이라 火無善惡이나 火壯傷多 故로 名惡火也라 ○馬: 其灸數之多寡도 亦然이니 若灸之而過此數者 則非善火요 乃惡火也니 其骨當枯하며 其脈當瀉하고 刺之而過此數者는 其氣當脫矣라 ●景岳: 刺有淺深遲速之度하야 灸有壯數大小之度하고 刺有補瀉하며 灸亦有補瀉하니 凡以火補者는 毋吹其火하고 以火瀉者는 疾吹其火라 血實氣壅하고 病深肉厚者는 宜寫요 陽衰氣怯하고 元虛體弱者는 宜補요 背腹肢體와 道遠勢緩者는 宜大而多요 頭面臂膈와 羸弱幼小者는 宜小而少니 此其大法也라 設不知此而灸過其度면 非惟無益이요 反以害之니 是惡火也라 故로 灸失其宜則骨枯脈瀉하고 刺失其宜則脫泄元氣하니 均致人之夭殃矣라 ○張: 灸法亦然이니 若灸而過此法이면 命曰惡火니 則骨爲之枯며 脈爲之瀉이요 刺而過此法 則脫氣矣라 ○白話解: 至于施灸壯數의 多少와 灸柱의 大小에 也同樣地應該因人而異하야 靈活運用이요 倘若不辨別症狀의 虛實하야 灸의 壯數超過了一定的限度면 反而使患者得到了具有危害性的惡火니 就會使骨節枯萎하고 血脈滯滯라 鍼刺의 深度와 留針의 時間이 超過了一定的程度면 也會使元氣虛脫하야 造成嚴重的後果라

이도 모두 2분을 넘지 않고 그 留鍼도 모두 1회 呼吸을 넘지 않는다. 그 年齡의 多少, 身長의 大小, 體格의 肥瘦를 헤아려야 하니 天의 常道를 본받는다 고 한다. 灸法도 또한 그러하니, 灸法에 있어 표준을 지나치는 경우는 惡火를 일으키니 骨이 마르고 脈이 거칠어지고 刺鍼에 있어 표준을 지나치는 경우는 脫氣가 됩니다.

#### 4. 상황에 따른 적절한 治療法

##### 【原文】

黃帝 曰夫經脈之大小와 血之多少와 膚之厚薄과 肉之堅脆 及 關1) (1)之大小를 可爲量度2)乎잇가

岐伯이 答曰其可爲量度3)者는 取其中度4) (2)也니 不甚脫肉而血氣不衰5)也라 若夫度之人6) (3)이 瘠7) (4)瘦而形肉脫者면 惡(5)可以度量刺乎잇가 審切循捫按(6)하야 視其寒溫盛衰而調之니 是謂因適(7)而爲之眞8)也니이다

##### 【校勘】

- 1) 關之大小: 『太素』와 『甲乙』에는 '關之大小'로 되어 있다.
- 2) 可爲量度乎: 『太素』·『周本』·『馬註本』·『張註本』에는 '可爲度量乎'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可以爲度量乎'로 되어 있다.
- 3) 其可爲量度者: 『太素』·『馬註本』·『類經』·『張註本』·『懸解』에는 '其可爲量度者'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其可爲量者'로 되어 있다.
- 4) 取其中度也: 『甲乙』에는 '取其中度者也'로 되어 있다.
- 5) 血氣不衰也: 『甲乙』에는 '血氣不衰者也'로 되어 있다.
- 6) 若夫度之人: 『甲乙』에는 '若失度人之'로 되어 있다.

- 7) 瘠瘦: 『太素』에는 '瘠瘦'로 되어 있다.
- 8) 爲之眞也: 『太素』에는 '爲眞者也'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謂之眞也'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關: 曲脚, 오금곡
- (2) 中度(중도): 보통사람의 표준적인 度數<sup>85)</sup>
- (3) 度之人(도지인): 計量 즉 측정되는 사람<sup>86)</sup>
- (4) 瘠: 消瘦 通, 닳아없어질소
- (5) 惡: 何也, 어찌오
- (6) 審切循捫按: 丹波·白話解는 "切은 寸口를 진맥하는 것을 말하고, 循은 尺膚를 만지는 것을 말하니 대개 經脈의 크고 작음과 皮膚의 두터움과 얇음은 寸部와 尺部에서 헤아려야 한다. 만약 肌肉의 견고하고 취약함과 덩어리 살의 크고 작음은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눌러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sup>87)</sup>라고 하였다.
- (7) 因適: 상황에 맞게 적절히 치료함<sup>88)</sup>

##### 【較註】

##### [24] 關之大小

丹波는 "『甲乙』에는 '關'字가 '關'字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옳다."<sup>89)</sup>라고 하였다.

- 85) ●景岳: 中度는 言中人之常度也라 ○張: 中度는 謂適其中 而爲度之正也라 ○白話解: 身材適中者 ○譯釋: 中等身材
- 86) ○白話解: 被衡量的人 ●譯釋: 被計量的人
- 87) ●丹波: 切은 謂診寸口요 循은 謂循尺膚니 蓋 經脈之大小와 膚之厚薄은 當寸尺度之요 如 肉之堅脆와 關之大小는 非一一捫按이면 不能知之라 ○白話解: 所以必須通過仔細的診察이니 切其寸口脈象하고 循經確定穴位하야 撫摸皮膚和按壓肌肉하야 以判別他的厚薄堅脆라
- 88) ●景岳: 因氣情하야 適其宜라 ○丹波: 因其各所適이라 ○白話解: 因人適宜라 ○譯釋: 因人制宜라

【考察】

‘膈之大小’에 있어, ‘膈’字는 문맥상 ‘膈’字가 옳다.

[25] 其可爲量度者 取其中度也 不甚脫肉而血氣不衰也 若夫度之人 瘠瘦而形肉脫者 惡可以度量刺乎 審切循捫按 視其寒溫盛衰而調之 是謂因適而爲之眞也

楊·馬·景岳·張은 “‘中度’는 보통사람의 표준적인 수치를 말한 것이다. 심하게 살이 빠진 것도 아니고 氣血이 심하게 衰弱하지 않은 경우는 보통의 방법을 쓰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심하게 수척하고 살이 빠진 경우는 정해진 수치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땅히 자세히 切·循·捫하여 그 盛衰에 따라 잘 조절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것은 다만 後學을 위하여 규칙을 설정한 것일 뿐이고, 氣의 虛實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반드시 마음으로 헤아려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病을 治療하는 참된 비결이다.”<sup>90)</sup>라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經脈의 大小와 血

89) ●丹波: 甲乙엔 膈作膈하니 是라  
90) ○楊: 中度者는 非唯取七尺五寸하야 以爲中度요 亦取肥瘦寒溫盛衰處其適者하야 以爲中度라 七尺五寸人은 爲中度者하야 量定이라 ○馬: 此言人之肉不脫하고 血氣不衰者는 可以度量而鍼灸之요 反此者는 則不可度量而止可調治也라 ●景岳: 中度는 言中人之常度也라 其肌肉不至脫하고 氣血不甚衰者는 乃可爲常法之準則이요 若肌體瘠而形肉脫이면 不得以程度拘泥也 故로 必當審切循捫하야 隨其盛衰而善調之라 然則上文所云者는 特爲後學設規矩耳요 而因氣情하야 適其宜는 必出於心하야 應於手라 斯得病治之眞訣矣라 ○張: 尙御公이 曰適은 從也요 眞은 正也라 夫天闕西北하고 地陷東南하니 至高之地엔 冬氣常在하고 至下之地엔 秋氣常在 而人亦應之라 是以로 五方之民이 有疎理緻理肥脂瘠瘦之不同 故로 可爲度量者는 取其中度也라 中度者는 卽瘦而不甚脫肉하고 雖弱而血氣不衰니 是謂適其中而爲度之正也라

의 多少와 皮膚의 厚薄과 肌肉의 堅脆와 膈肉의 大小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그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중간 값을 취하는 것이니 심하게 살이 빠진 것도 아니고 血氣도 衰弱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측정할 사람이 수척하고 몸의 살이 빠졌으면 어떻게 刺鍼할 수 있습니까? 切, 循, 捫按하여 그 사람의 寒溫과 盛衰를 살피서 조절하니 이것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IV. 意 譯

1장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으시기를, 인체의 十二經脈은 밖으로 十二經水와 상합하고 안으로 五藏六府에 이어지고, 十二經水는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각각 다르고 五藏六府의 위치의 높낮음과 크기와 水穀을 받아들이는 용적도 또한 다른데 어떻게 相應하며 그리고 經水는 물을 운행시키고, 五藏은 神氣魂魄을 모아서 간직하고, 六府는 水穀을 받아들여 소화시켜 精微한 氣를 化生하여 전신으로 布揚하고, 經脈은 血을 받아 전신을 運行하여 이렇게 각각의 작용이 틀리는데, 어떻게 相合하여 치료합니까? 刺鍼의 깊이와 뜸의 壯數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좋은 질문이십니다. 하늘은 지금이 높아 헤아릴 수 없고 땅은 지금이 넓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天地의 사이에서 살아가니 이런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무릇 8尺정도의 키를 가진 보통사람은 신체가 있으니 밖으로는 둘러보고 어루만져 알 수가 있고, 그 죽었을 때에는 解剖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五藏의 견고하고 취약함과 六府의 크고 작음과 穀氣의 많고 적음과 脈의 길고 짧음과 血의 맑고 탁함과 氣의 많고 적음과 十二經의 氣血多少에는 모두 일정한 標準數值가 있으니, 침과 뜸으로 병을 치료하여 각각 그 經脈의 氣運을 조절할 때에도 참으로 일정하게 그것과 相合하는 數值가 있습니다.

## 2장1절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설명을 들으니 듣기에는 그럴 듯하나 마음속으로 이해되지 않으니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天地와 하나가 되어 陰陽에 氣에 相合하는 것이니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足太陽經은 多血少氣하고 六府는 모두 濁하나 膀胱의 水는 홀로 맑음(淸)으로 足太陽經이 맑은 淸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膀胱에 이어져 水道를 疏通합니다. 足少陽은 少血多氣하고 모든 陽이 濁하나 膽은 中精의 府로 홀로 맑은 것을 받으므로 足少陽經이 여러 물길을 받으나 맑은 渭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膽에 이어집니다. 足陽明은 多氣多血하고 胃가 五臟六腑의 海가 되고, 陽明이 中土에 위치하여 萬物이 모여들고 또 水穀의 海가 되므로 足陽明이 땅을 둘러싸고 모든 물이 합쳐지는 海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胃에 이어집니다. 足太陰은 多氣少血하고, 脾는 中央에 위치하여 사방으로 灌溉하므로 사방으로 灌溉하는 湖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脾에 이어집니다. 足少陰은 少血多氣하고, 腎이 天一의 水를 주관하여 生氣의 근원이 되고 위로 숨구멍에 상응하여 呼吸을 주재하므로 發源하는 곳이 天息(하늘의 호흡)인 汝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腎에 이어집니다. 足厥陰은 多血少氣하고, 모든 강이 모두 동쪽으로 흐르나 澗水는 동쪽으로부터 오므로 東方의 肝木인 足厥陰과 相合하고 안으로 肝에 이어집니다. 手太陽은 多血

少氣하고, 小腸이 胃의 水液을 받아 받아들여 膀胱으로 보내주니 手太陽이 海水로 들어갔다가 淮泗에 들어가는 淮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小腸에 이어져 水穀이 변화하여 생긴 糟粕중에 탁한 부분을 大腸으로, 맑은 水液을 膀胱으로 보내주는 泌別淸濁을 합니다. 手少陽은 少血多氣하고, 少陽이 君主의 재상이 되어 陰陽이 서로 합하므로, 手少陽經이 心에 해당하는 濟水와 합쳐지는 溧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三焦에 이어집니다. 手陽明은 多血多氣하고, 大腸은 水穀을 傳道하여 濟泌別汁하고 廻腸은 열두 번 굽이쳐서 膀胱으로 滲入하므로 手陽明經이 萬里를 굽이쳐서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江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大腸에 이어집니다. 手太陰은 多氣少血하고, 肺에 屬하고 肺는 臟腑의 郄개가 되니 그 經脈이 가장 높고 百脉을 朝會하므로 4대강의 으뜸이고 가장 긴 黃河와 相合하고, 또 肺는 乾金에 속하여 天을 주관하여 水의 生源이 되므로 手太陰經이 乾의 위치로부터 와서 千里를 흐르는 동안 한번 굽이치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강물이라는 黃河와 相合하고 안으로 肺에 이어집니다. 手少陰은 少血多氣하고, 밖으로 心은 君主의 官이어서 홀로 존귀하므로, 手少陰經이 잠복하여 흐르고 흐름이 자주 끊어져 모습이 비록 미미하나 유독 존귀하게 여겨져 4대강의 하나를 차지하는 濟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心에 이어집니다. 手心主는 多血少氣하고, 血은 神氣로 陰 중에 맑은 것이니 心이 주관하는 바이고 手厥陰心包絡과 합해져 經脈의 가운데를 운행하니 두 澗水가 흐름을 합치는 것과 같으므로 手心主가 澗水와 相合하고 안으로 心包에 이어집니다.

## 2장2절

이 五藏六府와 十二經水는 밖으로는 源泉이 있고, 안으로는 이 源泉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또 바다로 흘러간 물은 비가 되어 源泉

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모두 안팎으로 서로 관통하여 고리의 끝이 없음과 같이 순환하니 사람의 經脈도 또한 그러합니다. 十二經脈이 起始하는 것이 곧 밖으로 源泉이 있는 것이고 府에 絡하고 藏에 屬하는 것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에 비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十二經脈의 순환이 手太陰肺經으로부터 시작하여 足厥陰肝經에 이르고, 다시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는 것이 곧 안팎으로 서로 관통하여 고리의 끝이 없음과 같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天은 가볍고 맑아 위에 있으므로 陽이 되고, 地는 무겁고 탁해 아래에 있으므로 陰이 됩니다. 그러므로 허리 이상은 天에, 허리 이하는 地에 相應합니다. 그러므로 胃·膽·膀胱의 세 經脈은 모두 머리로부터 발에 이르러 허리 이하의 陰에 속하는 下肢에 분포하니 이것에 相應하는 海水 이북의 海水, 渭水, 淸水는 陰이 되고, 脾·肝·腎 세 經脈은 모두 陰에 속하는 下肢와 陰에 속하는 內側에 분포하니, 이것에 相應하는 湖水, 澗水, 汝水는 陰中の 陰이 되고, 肺·心·心包 세 經脈은 陽에 속하는 上肢와 陰에 속하는 內側에 분포하니 이것에 相應하는 河水, 濟水, 漳水는 陽中の 陰이 되고, 小腸·三焦·大腸 세 經脈은 陽에 속하는 上肢와 陽에 속하는 外側에 분포하니 이것에 相應하는 淮水, 灑水, 江水는 陽中の 太陽이 됩니다. 이것은 중국 한 구역의 陰陽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나 인체와 相合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자연계가 相應하기 때문입니다.

### 3장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經水가 經脈에 相應하는데 있어 그 길이와 깊이와, 水血의 多少가 각각 다르니 어떻게 알맞게 刺鍼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足陽明은 五藏六府의 海이니 그 脈이 크고 血이 많고 氣가 旺盛하고 熱이 많다. 그러므로 足陽明經을 刺鍼하는 경우

에 깊이 刺鍼하지 않으면 邪氣가 흩어지지 않고 오래 留鍼하지 않으면 邪氣를 瀉할 수 없으니, 足陽明의 刺鍼은 6分の 깊이로 하고 留鍼은 10呼吸로 한다. 足太陽은 刺鍼깊이는 5分, 留鍼은 7회 呼吸으로 하고, 足少陽은 刺鍼깊이는 4分, 留鍼은 5회 呼吸으로 하고, 足太陰은 刺鍼깊이는 3分, 留鍼은 4회 呼吸으로 하고, 足少陰은 刺鍼깊이는 2分, 留鍼은 3회 呼吸으로 하고, 足厥陰은 刺鍼깊이는 1分, 留鍼은 2회 呼吸으로 한다. 手陰陽經脈은 肺에 가까이 있어 氣를 받는 길이 가깝고 또한 經脈이 循行하는 通路에 있어 肌肉이 얇고 穴位가 알기 때문에 脈氣의 運行이 또 비교적 신속하니 刺鍼하는 깊이도 모두 2分을 넘지 않고 留針도 또한 1회 呼吸을 넘지 않습니다. 刺法의 큰 줄기는 비록 위에서 말한 바와 같으나 사람마다 다른 바가 있으니, 臨床에 있어서는 다시 病人의 年齡과 身長과 體質의 強弱肥瘦와 得氣의 有無를 살펴서, 正氣가 적은 것은 旺盛하게 하고 邪氣가 旺盛한 것은 쇠약하게 하고 병의 부위가 큰 것은 넓게 하고 작은 것은 좁게 하고 살찐 사람은 깊이 刺鍼하고 마른 사람은 얇게 刺鍼하는 등의 다른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運用해야 하니, 이것을 말하기를 天의 常道를 본받는다 고 합니다. 刺鍼에 깊이와 시간의 數値가 있듯이 灸法에는 壯數와 大小의 수치가 있으며, 刺鍼에 補瀉가 있듯이 灸法도 또한 補瀉가 있으니, 만약 이를 알지 못하고 灸法에 그 數値를 지나치면 다만 무익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워 인체에 危害를 주는 火를 얻으니 뼈가 마르고 脈이 거칠어지고, 刺鍼에 있어 표준을 지나치는 경우는 正氣가 消耗됩니다.

### 4장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經脈의 크기와 血의 多少와 피부의 厚薄과 肌肉의 堅脆와 脂肪의 크기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그 해야될 수 있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보편적인 수치를 取하는 것이니 심하게 살이 빠진 것도 아니고 血氣도 虛衰하지 않은 것이고 이런 경우는 보통의 鍼灸 법칙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측정할 사람이 수척하고 몸의 살이 빠졌으면 어떻게 標準數值로 刺鍼할 수 있겠습니까? 정해진 數值를 고집해서는 안되고, 자세히 寸口를 진맥하고, 尺膚를 만지고, 肌肉의 전고하고 취약함과 크고 작음을 어루만지고 눌러보아 그 사람의 寒溫과 盛衰를 살펴서 조절할 것이니 이것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病을 治療하는 참된 방법이 됩니다.

## V. 結 語

본편에서 언급한 十二經脈과 十二經水の 相應關係는 各家의 註釋이 相異하고 이로 인해 그 內容을 완전히 理解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白話解에서는 “이는 循環이 끝없는 整體觀을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認識에 바탕을 두었으면, 여기에 나온 十二經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十二經脈에 배합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세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十二經水와 十二經脈의 相合關係는 그 당시의 中國地形, 그 중에서도 강물에 맞추어 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기타 다른 韓國·日本·美國 등에서도 여러 강을 가지고 十二經水라 부르고 十二經脈과의 相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中國은 西北쪽이 높고, 韓國은 東北쪽이 높은 것과 같은 지역적으로 차이점이 있으니 이런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편에서는 일반적 상황에서 十二經脈에 따른 刺鍼깊이와 留鍼시간의 標準數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니, 白話解에서는 “본편은 각각 經脈

位置의 깊이와 遠近으로 물길의 깊이와 遠近의 區別이 있는 것에 대응하여 刺鍼 깊이와 留鍼 시간을 나누었으니 이것이 본편에서 특별히 열두 강을 들어 經脈에 비유한 중요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人體 각 부위의 皮肉筋骨과 刺鍼 깊이는 원래 일정한 比例가 있다. 예를 들어 中腕穴과 環跳穴 등은 肌肉 깊숙이 있으므로 당연히 長針으로 깊이 刺鍼해야 하고, 少商穴과 百會穴 등은 肌肉이 얇은 곳에 있으므로 당연히 短針으로 얇게 刺鍼해야 한다. 이로써 알 수 있으니 본편에서 말한 각각 經脈의 刺鍼 깊이는 몇 분이고 留鍼시간은 몇 呼吸에 해당한다는 標準은 주로 비록 이것이 一般의 상황에 있어 經脈의 深淺遠近과 刺鍼 깊이의 比例를 설명한 것이나, 다만 臨床에 있어서는 다시 病人의 年齡과 身長과 體質의 強弱肥瘦와 得氣의 有無를 살펴서, 적은 것은 旺盛하게 하고 旺盛한 것은 쇠약하게 하고 病의 부위가 큰 것은 넓게 하고 작은 것은 좁게 하고 살찐 사람은 깊이 하고 마른 사람은 얇게 하는 등에 다른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運用해야, 치료가 지나쳐서 생기는 醫療事故와 미치지 못해서 생기는 治療효과와 감소를 피할 수 있다.”<sup>91)</sup>고 하였다. 즉 十二經脈에 따른

91) ●白話解: 本節은 以各經脈位置의 淺深遠近으로 等于是河流有淺深遠近의 區別一樣하야 所以分別指出了 針刺의 淺深程度와 留針時間의 久暫等等하니 這也是本篇特別舉出了 十二河流來 比喻經脈의 主要目的이라 一般의 說이면 人體各部의 皮肉筋骨과 針刺의 淺深는 原是有一定的 比例의 이라 例如中腕跳等穴은 多在肌肉深部 故로 宜長針深刺하고 少商百會等穴은 位于肌肉淺薄之處 則宜短針淺刺라 由此可見이니 本節所說各經應該針幾分留幾呼의 標準은 主要雖是就一般의 情況來說明經脈深淺遠近과 刺鍼深度의 比例나 但在臨床에 仍當結合病人 年齡의 少長과 身材의 大小와 體質의 強弱肥瘦와 和針刺感應의 有無等方面하야 根據少者盛하고 長者衰 大者廣 小者狹 肥者深 瘦者淺等 不同情況하야 去靈活掌握運用이라야 才可避免太過則造成醫療事故와 不及則難以獲得預期的療效라

刺鍼深度와 留鍼時間의 기준은 標準的인 사람에 대한 數值이며 환자의 肥瘦, 身長, 年齡 등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臨床에서 일률적으로 留鍼시간을 20분내지 30분으로 하는 것은 본편의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氣를 소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手經脈의 留鍼시간을 足經脈보다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편에서 考察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外可度量切循'은 '外生可度量切循'로 고치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2. '外有源泉而內有所稟'에 있어, '外有源泉'은 經脈이 起始하는 것이고, '內有所稟'은 經脈이 臟腑에 絡屬하는 것이다.

3. '熱壯'은 陽熱이 왕성하다는 生理的 특징이다.

4. '其受氣之道近 其氣之來疾'은 手經脈의 길이가 짧고 또 肺에 가까이 있어 經脈이 氣를 받는 길이 짧아 시간이 적게 걸리고 이것이 곧 빠른 것이다.

5. '膈之大小'에 있어, '膈'字는 '關'字가 옳다.

## VI. 參考文獻

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2. 楊上善 著·蕭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出版社·年度未詳.
3. 聚珍倣宋版;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4. 陳夢雷 等編;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醫經註釋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5. 馬 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

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6. 馬 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大星文化社, 서울, 1992.
7. 張介賓; 類經簡字本, 成輔出版社, 서울, 1982.
8. 張介賓; 類經正字本, 大星文化社, 서울, 1982.
9. 張志聰; 靈樞集註,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10. 丹波元簡; 靈樞識,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11. 黃元御; 靈樞懸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2. 陳璧琥·鄭卓人; 靈樞經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3.
13.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76.
14.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9.
15.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6.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17. 黃三元; 黃帝內經概論, 八德教育文化出版社, 台北, 1983.
18. 皇甫謐; 鍼灸甲乙經, 一中社, 서울, 1989.
19. 皇甫謐 著·山東中醫學院 校釋; 針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20. 洪元植;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傳統文化研究會, 서울, 1995.
21.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 VII. 參考辭典

1. 謝 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 1980.
2. 李熙昇; 국어대사전, 民衆書林, 서울, 1986.
  3. 김민수 外; 국어대사전, 金星出版社, 서울, 1991.
  4. 金賢濟·洪元植; 韓醫學辭典, 成輔社, 서울, 1983.
  5.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92.
  6. 金赫濟·金盛元編著;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7.
  7. 許 愼; 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서울, 1990.
  8. 동의학사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도서출판까치, 서울, 1990.
  9. 康寔鎭 編; 中韓大辭典, 進明出版社, 서울, 1993.

KYOB O  
교보문고